

수능 국어 2015^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연대
고전

소설/수필

희곡/시나리오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소설 이해력 높이기에서 작품의 짧은 줄거리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를 거쳐 현재 문현고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현대고전 소설/희곡/수필/

시나리오 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국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국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1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1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수능 국어의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또 소설 작품마다 **이해력 높이기**를 설정해 짧은 줄거리를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소설에 대한 이해력을 쉽게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올림



차 례

제1부 현대·고전 소설

01. 인물의 성격과 성격 제시 방법	10
유형모의1-1 모범 경자생, 박영준	54
유형모의1-2 용소와 며느리 바위	60
02. 갈등	63
유형모의2-1 선헌동 나그네, 이청준	76
유형모의2-2 장끼전	80
03. 인물의 의도·심라·태도	84
유형모의3-1 돈(豚), 이효석	103
유형모의3-2 무진 기행, 김승옥	107
유형모의3-3 구운몽, 김만중	110
04. 사건·구성	114
유형모의4-1 파편, 이동하	135
유형모의4-2 숙영낭자전	139
05. 복선·암시	144
유형모의5-1 삼포 가는 길, 황석영	154
유형모의5-2 박씨전	158
06. 화소와 배경, 소재의 구실과 의미	162
유형모의6-1 달밤, 이태준	185
유형모의6-1 눈길, 이청준	189
유형모의6-2 조신전, 완판본	193
07. 시점과 거리	197
유형모의7-1 동행, 전상국	211
유형모의7-2 (가) 호질 박지원 (나) 춘향전	216
08. 문체와 어조	219
유형모의8-1 모래톱 이야기, 김정환	228
유형모의8-2 호질, 박지원	233
09. 서술상의 특징	237
유형모의9-1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258
유형모의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261
유형모의9-3 수궁가	265
유형모의9-4 유충렬전	269
유형모의9-5 춘향전, 심청가	272

작품명별 찾아보기

가나다순

● 현대 소설					
● ㄱ			● ㅂ		
감자, 김동인	38		바비도, 김성한	237, 238	
강, 서정인	235		배따라기, 김동인	30	
건방진 신문팔이, 이청준	134		백지 아다다, 계몽목	302	
고향, 현진건	132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34, 40	
관촌수필, 이문구	46		봄봄, 김유정	42, 239, 340	
광장, 최인훈	189		불꽃, 선우 휘	307	
그 여자네 집, 박완서	237		붉은 산, 김동인	299	
금 따는 공발, 김유정	19		비 오는 날, 손창섭	178, 240	
금시조(金翅鳥), 이문열	32		빈처, 현진건	179	
금어(金魚), 정한숙	238		● ㅅ		
김 약국의 딸들, 박경리	336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90	
꺼삐딴 리, 전광용	21		사하촌, 김정환	67	
● ㄴ			삼대, 염상섭	75, 334	
나상, 이호철	264		삼포 가는 길, 황석영	34, 164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259		상록수, 심훈	127	
날개, 이상	212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154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44		선헌동 나그네, 이청준	23, 79	
눈길, 이청준	202		소나기, 김유정	11	
눈이 오면, 임철우	122		소나기, 황순원	135	
● ㄷ ~ ㄹ			소문의 벽, 이청준	184	
달밤, 이태준	196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	214	
달아지는 살들, 이호철	218		실화, 이상	130	
독일인의 선물, 하버트 펠리호	123		● ㅇ		
돈, 이효석	107		애국부인전, 장지연	36	
돌다리, 이태준	14, 94		어둠의 혼, 김원일	18	
동백꽃, 김유정	35, 221		역로, 채만식	15, 304	
동행, 전상국	226		역마, 김동리	68	
두 파산, 염상섭	126		역사, 김승옥	267	
등산불(等身佛), 김동리	216		요한 시집, 장용학	301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6		용초도 근해, 박영준	37	
● 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36, 280	
만무방, 김유정	98		우상의 눈물, 전상국	25	
매잡이, 이청준	20		운수 좋은 날, 현진건	240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175, 191		유예, 오상원	43, 179	
모래톱 이야기, 김정환	122, 153		은세계, 이인직	155	
모반(謀反), 오상원	18		잉여 인간, 손창섭	240	
모범 경작생, 박영준	27, 55		● ㅈ		
목님이 마을의 개, 황순원	25		자전거 도둑, 김소진	128	
무녀도, 김동리	69, 180		장마, 윤홍길	73	
무정, 이광수	256, 316		전황당 인보기, 정한숙	26	
무진 기행, 김승옥	113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22	
			정거장 근처, 채만식	255	
			중국인 거리, 오정희	273	
			지주회시, 이상	177	
			● ㅊ		
			천변풍경, 박태원	262	
			채취, 박영준	236	
			치숙, 채만식	90	
			● ㅋ ~ ㆁ		
			태백산맥, 조정래	134	
			태평천하, 채만식	194, 239	
			파편, 이동하	143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41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125	
			● ㅎ		
			학, 황순원	37	
			학마을 사람들, 이범선	31	
			한계령, 양귀자	318	
			해방 전후, 이태준	20	
			홍염, 최서해	12, 70	
			화랑의 후예, 김동리	48, 92	
			화수분, 전영택	213	
			회색 눈사람, 최윤	174	
			후송, 서정인	66	
			흐르는 북, 최일남	269	
			● A ~ Z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9	



작품명별 찾아보기

● 고전 소설

광문자전, 박지원	15
구운몽, 김만중	67, 117
금방울(금령)전, 작자 미상	137, 173
김학공전, 작자 미상	124
남문(南門) 안 주점(酒店), 작자 미상	27
단군 신화(檀君神話), 작자 미상	33
동명왕 신화, 삼국유사	24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29, 186
명주가 배경 설화, 작자 미상	128
몽유록(夢遊錄), 원호	39
박씨전, 작자 미상	35, 96, 169
박흥보가, 신재효본	11
배비장전, 작자 미상	300
사씨남정기, 김만중	13, 139, 160
서동지전, 작자 미상	26
설공찬전, 작자 미상	217
설씨녀와 가실, 작자 미상	214
성진사전, 이옥	17
수궁가	285
숙영낭자전, 작자 미상	148
심생전, 이옥	158
심청가, 작자 미상	296
심청전, 작자 미상	16, 223
양반전, 박지원	223, 242
영영전, 작자 미상	91
옥루몽, 남영로	325
온달전, 작자 미상	89
웅고집전, 작자 미상	41
용소와 며느리바위, 작자 미상	62, 236
운영전, 작자 미상	23, 43, 331
유충렬전, 완판본	101, 291
윤지경전, 작자 미상	302
이생규장전, 김시습	52
이여송의 말무덤, 작자 미상	126
이춘풍전, 작자 미상	123
임경업전, 작자 미상	29
임진록, 작자 미상	133
장끼전, 작자 미상	24, 803
적벽가, 작자 미상	69, 271
전우치전, 작자 미상	28, 344
조신전, 작자 미상	207
조웅전, 작자 미상	28, 175
주생전, 권필	14

지귀 설화, 작자 미상	19
창선감의록, 조성기	76
채봉감별곡, 작자 미상	68
최고운전, 작자 미상	105
최척전, 조위한	320
춘향전, 작자 미상	135, 295
콩쥐팍쥐전, 작자 미상	32
허생전, 박지원	31, 44
호질, 박지원	38, 156, 256
홍계월전, 작자 미상	317
홍길동전, 허균	66, 176, 328
홍도, 유몽인	40
화왕계, 설총	321
흥부전, 작자 미상	141

● 현대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350
구두, 계몽록	359
권태, 이상	371
그믐달, 나도향	400
근원수필, 김용준	410
길, 박이문	380, 400
나무, 이양하	404
딸각발이, 이희승	399, 407
멋 설, 조지훈	406
무소유, 법정	398
미운 간호부, 주요섭	354
백두산 등척, 변영로	382
백설부, 김진섭	403
부끄러움, 윤오영	352
산정무한, 정비석	390
수목송, 김동리	370
신록예찬, 이양하	374
아리랑과 정선, 김병중	402
우세(牛歲), 이태준	414
은전 한 뼚, 피천득	368, 418
잃어버린 동화, 박문하	385
조춘점묘, 이상	377
질화로, 양주동	376
집에 대하여, 박이문	399
짜장면, 정진권	357
폭포와 분수, 이어령	403
피판 문답, 김소운	399
행복의 메타포, 안병욱	367

● 고전 수필

계축일기, 어느 궁녀	368
곡목설, 장유	353
논뢰유, 이익	400
도자설, 강희맹	369
범희문회서도원림, 박규수	373
북산루, 의유당	354
삼치설, 강희맹	364
어우야담, 유몽인	379
유한라산기, 최익현	356
이옥설, 이규보	404
일야구도하기, 박지원	351
조침문, 유씨 부인	402
주옹설, 권근	401
차마설, 이곡	418
환상론, 정약용	395

● 희곡/시나리오

국물 있습니다, 이근삼	424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홍파 각색	467
동승, 함세덕	422
동동 낙랑동, 최인훈	433
만선	470
불모지, 차범석	462
산불, 차범석	425
산허구리, 함세덕	427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오영진	423
서편제, 김명곤 각색	423
성난 기계, 차범석	445
소, 유치진	436
시집가는 날, 오영진	457
아리랑, 나운규	475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진수완	482
오발탄, 나소는 각색	448
원고지, 이근삼	472
장마, 윤삼육 각색	430
춘풍의 처, 오태석	452
춘향가, 작가 미상	449
토막, 유치진	441
편지, 조환유, 이정국, 김무령	465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 제1부 소설, 제2부 수필, 제3부 희곡/ 시나리오 새로운 원리와 유형모의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2 원리는 이렇다

3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06 배경과 소재 [예제]

5-2 복산암시[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된 사건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있다고 정답 찾기 ㉠에 이어진 춘향 모의 '후기(後期)'
나지 바랐더니 이리 잘 되었소'라는 말은 반어이므로 잘못되었다는 말이며 어사또는 식은 밥을 즐겁게 먹어치우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는 금전적인 몰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행동이다.

● 오답 비루기 ㉡ 자살과 관련된 어사또의 행동이나 대화는 없다. ㉢ '짐짓 춘향 모의 하는 거동을 보려 하고'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 ㉤ 향단이 어사 부모의 문안을 묻는 말에 어사가 '오냐, 고생이 어떠하냐?'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나. 제4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방법은 있다로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제1부

현대·고전 소설

현대·고전 소설 감상법

1.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2. 인물의 심리 상태나 태도를 추측해 본다.
3. 분위기나 정조(情調)를 알아본다.
4.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알아본다.
5. 인물의 행동의 원인과 그 결과를 알아본다.
6. 인물의 성격을 알아본다.
7. 생략된 사건을 추측해 본다.
8.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과 제도, 문화 등을 추측해 본다.
9. 인과적으로 구성된 요소를 시간적 순서인 줄거리로 배열해 본다.
10. 인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1. 고전 소설은 고어 해독법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편집자적 논평 등에 특히 유의한다.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인물은 행위의 주체로서 사건의 담당자이며, 이 인물의 사고, 행동,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주제가 실현된다. 인물의 성격은 요약, 설명, 논평, 심리 분석, 외양 묘사, 버릇습성, 태도, 취미, 갈등, 행동, 말투와 대화, 고백, 과거의 일화, 이름 등의 방법에 의해 제시된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을 찾아내는 문제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의 갈래를 알아내거나 간접적으로 제시된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인물의 유형

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 ① 평면적 인물 :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의 한 면 이외에 더 발전·변화될 여지를 보이지 않는 인물로 ‘정적 인물(靜的人物)’, ‘불박이 인물’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김유정 작 「소나기」의 춘호, 「금 파는 콩밭」의 ‘영식’, 전영택 작 「화수분」의 화수분, 주요섭 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옥희 엄마, 유몽인 작 「홍도」의 홍도, 「심청전」의 심청, 「춘향전」의 춘향 등이 있다.

예문보기

춘호는 자기 집 — 올 봄에 오 원을 주고 사서들은 묵사는 오막살이 집 —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졸라 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이 원만 안 해줄 테여?”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울화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 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이삼 원의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 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뚱뚱하겠다, 돈 이 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체도 안 하니 꽤 씁쓸한 듯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 번,
“돈 좀 안 해줄 테여?”

하고 소리를 뱉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노기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홑뜨고 벽에 기대인 지게막대기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 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를 벗어 나간다. 잼쳐 지게막대는 앓은 채 꼬꾸라진 아내의 발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리갈겼다. (중략)
아내가 꿈지락하는 것이 보기에 펍이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 빗을 쓱 뽑아 들고는 시원스레 쪽쪽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 가며 머리애다 번지르하게 발라 놓았다. 그래 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 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질러 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어 삼아 놓았던 짚신을 아내의 발에 신고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꼴을 내주었다.
“인제 가 봐!” 하다가
“바루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 원을 고이 받고자 손색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
—소나기, 김유정

▶ 처음에 아내에게 매질을 해서라도 노름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비친 춘호는 맨 끝에서도 아내가 이 주사에게 몸을 팔아 마련해 오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평면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② 입체적 인물 :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성격을 드러내고 발전·변화하는 인물로 ‘동적 인물(動的人物)’, ‘원형적(圓形的) 인물’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안수길 작 「제3인간형」의 조운, 염상섭 작 「두 파산」의 김옥임, 「흥부전」의 놀부 등이 있다.

예문보기

하루는 놀보가 흥보 불러 하는 말이,
“사람이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법이다. 너도 나이 장성하여 계집 자식 있는 놈이 사람 생애 어려운 줄을 조금도 모르고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놀고 먹고 놀고 입는 모양 보기 싫어 못살겠다. 부모의 세간살이가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될 것인데, 하물며 세간은 나 혼자 장만하였으니, 네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 네 처자를 데리고서 어서 멀리 떠나거라.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살육지환이 날 것이니, 어서 급히 나가거라.”
하니 가련한 흥보 신세에 지성으로 비는 말이,
“제발 빙니다. 형님 전에 빙니다. 형제는 일신이라, 한 조각을 베어내면 둘 다 병신 될 것이니, 그 수모를 어찌하리. 동생 신세는 고사하고,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뉘 집에 가서 의탁하며, 무엇을 먹여 살리겠어요. 당나라 장공예는 아홉 세대가 함께 살았다 하는데, 아우 하나 있는 것을 나가라 하십니까. 할머니는 짐승이지만 벗 사이의 정이 두텁고, 상체는 한갓 꽃이지만 즐겁게 사귀는 깊은 정을 품었으니 형님 어찌 모르십니까. 오류의 뜻을 생각하여 심분 통촉하십시오.” 놀보가 분이 나서 그런 야단이 없었다. (중략)
장군이 분부하기를,
“네 말이 그러하니 알기 쉬운 수가 있다. 남원이나 고금도나 우리 중형 관우씨 계신 곳에 내가 가서 모시고 있다가 네 소문을 탐지하여 개과를 하였으면 재물을 다시 주어 부자가 되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소나기, 김유정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일제시대 궁핍한 농촌 현실과 유랑 농민의 삶의 애환.

짧은 줄거리 : 흥작과 빚쟁이의 위협 때문에 야간 도주를 한 춘호는 처에게 매질하며 돈을 구해 올 것을 강요하자 춘호 처는 이 주사를 만나 몸을 허락하고 돌아와 돈 2원을 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튿날 춘호는 2원을 얻어서 빚도 갚고 서울로 가서 아내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아내를 곁에 단장시켜 이 주사에게 보낸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박흥보가, 신재효본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짧은 줄거리 : 욕심 많은 놀보에게 쫓겨난 흥보가 어렵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다리를 다친 제비를 구해 주자, 제비는 이듬해 박씨 하나를 갖다 주었다. 흥보는 그 박씨가 자라서 얻은 박에서 금은보화를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 이에 심술이 난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날려 보내어 같은 식으로 박을 얻었으나 그 속에는 종이 귀신이니 하는 것이 나와서 집안을 망쳐 놓는다. 그러자 흥보는 놀보를 도와주고 놀보는 개과천선하여 흥보와 우애롭게 살아간다.

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와서 죽일테니, 군사나 잘 먹여 위로하라. 이제 곧 떠나겠다.”

놀보가 감화되어 양식으로 밥을 짓고, 소와 닭 개 많이 잡아 군사를 먹이면서 좋은 술을 연해 부어 장군 앞에 올리니, 제 계집이 말려,

“애거, 그만 합쇼. 그 장군님 술 취하면 아무 죄 없는 놈도 편타를 하신다네.”

놀보가 웃으며,

“자네가 어찌 알아. 그 장군님 장한 의기는 엄안이라도 행복하게 하셨나니.”

장군이 군사를 돌이키신 후에, 가산을 돌아보니 한번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이 되었구나, 방성통곡하고 흥보집을 찾아가니, 흥보가 크게 놀라 극진히 위로하고, 저의 세간 반 나누어 형우제공 지내는 모습은 누가 아니 칭찬하리. 도원에 남은 의기가 천고에 전하여지니, 이러한 어리석고 못난 인간, 욕심 많은 자도 청렴하고 나약한 자도 일어서는 백이 숙제의 풍속과 같은가 한다.

—박흥보가, 신재효본



놀보는 처음에 아우까지 내쫓는 인색함을 드러내다가 맨 끝에 개과(改過)하여 우애롭게 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입체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나. 주동 인물(主動人物)과 반동 인물(反動人物)

① 주동 인물 :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 주인공.

예를 들면 최서해 작 「흥염」의 문 서방, 정한숙 작 「전황당 인보기」의 강명진, 「유충렬전」의 유충렬, 「춘향전」의 이몽룡 등이 있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흥염, 최서해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조선인 소작인들의 비참한 삶과 그들의 저항

짧은 줄거리 : 한국에서 이민 간 농부들이 사는 이 마을의 소작인 문 서방의 딸 용례를, 중국인 지주 인가는 빚 대신 강제로 데려간다. 딸을 빼앗긴 문 서방은 중국 되놈들에게는 조선 거지, 한국인들에게는 딸 팔아 먹은 놈으로 놀림을 당하고, 아내마저 화병으로 잃고 만다. 아내가 죽은 이튿날 문 서방은 지주 인가의 집으로 달려가 불을 지르고, 도끼로 은가를 해쳐 죽인 뒤 딸을 부여안는다.

예문보기

딸과 아내를 잃은 문 서방은,

“하하하…….”

시원스럽게 웃고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 꿈무늬에 찔던 도끼를 만져보았다.

일 동리 사람들과 인가의 집 일꾼들은 불붙는 데 모여들었으나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떠돌고 덤비면서 달려가고 달려올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울타리는 물론 울타리 속에 엉킴히 서 있던 큰 집 두 채도 반이나 타서 쓰러졌다.

이런 불 속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발 가운데로 튀어나가는 두 그림자가 있었다. 하나는 커단 장정이요, 하나는 작은 여자이다. 뒷간 숲에서 이것을 본 문 서방은 그 두 그림자를 향하여 내리뛰었다. 그는 천방지방 내리뛰었다. 독살이 잔뜩 올라서 불빛에 번쩍이는 그의 눈에는 이 두 그림자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으음 꺾.”

문 서방이 여러 사람을 헤치고 두 그림자 앞에 가 섰을 때 앞에 섰던 장정의 그림자는 땅에 거꾸러졌다. 그때는 벌써 문 서방의 손에 쥐었던 도끼가 장정 인가의 머리에 박혔다. 도끼를 놓은 문 서방의 품에는 어린 여자의 그림자가 안겼다. 용례가…… —흥염, 최서해



문 서방은 딸을 빼앗아 간 인가를 살해하고 딸을 되찾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주동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반동 인물 : 주인공의 의지에 대립되는 인물. 예를 들면 선우휘 작

「불꽃」의 연호, 이기영 작 「고향」의 안승학, 「운명전」의 안평대군, 김시습 작 「사씨남정기」의 교씨 등이 있다.

예문보기

사공자 저저(姐姐)의 고집을 알고 돌아가 늙은 창두(蒼頭) 한 명과 비자(婢子) 양랑을 보내
거늘, 사씨 가로되,

“우리 집에도 본디 노복이 얼마 안 되거늘 어지 여럿을 두리오.”

하고, 늙은 창두 한 명만 두어 외정(外庭)을 맡아 보라 하고 양랑은 보낸니라. 이 곳은 유씨
종족과 노복 등이 많이 사는 데라, 사씨의 몸을 보고 모두 나와 위로하며 산과 야채로써 공
급하며 그 마음을 풍족케 하니, 사씨 또한 여공이 민첩하여 남의 침선방적(針線紡績)도 하며
약간 패물을 팔아 연명(延命)하여 고생으로 세월을 보내더라.

이 때에 교군(轎軍) 등이 돌아가 사씨가 유 상공의 묘하(墓下)로 감을 고하니, 교씨 생각하
되,

‘제 신성한으로 가지 않고 유씨 묘하에 있음은 반드시 출부(黜婦)로 자처함이 아니라.’

하고 이에 한림에게 말하되,

“사씨 더러운 이름으로 종조(宗祖)에게 득죄하였거늘 감히 유씨 묘하에 있으리오.”

“제 이미 출부된 바에 거취를 제 뜻대로 할지라. 하물며 묘하에 타인도 많이 사나니 저를
금하여 무엇하리오?”

하니 교씨 마음에 거리끼나 감히 어떻게 못하더라.

하루는 교씨 동청(董淸)을 보고 의논하니, 청이 가로되,

“사씨 유씨 묘하에 있고 본가(本家)로 가지 아니함은 네 가지 까닭이 있으니, 첫째는 전일
에 옥지환 일을 발명(發明)코자 함이요, 둘째는 유가(儒家)의 자부(子婦)로 자처하여 후일을
바람이요, 셋째는 유가 종족에게 인정을 끼쳐 후일 도움이 되게 함이요, 넷째는 한림이 춘추
(春秋)로 묘하에 다니니, 사씨 심산궁곡(深山窮谷)에서 무궁한 고초(苦草)를 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비록 철석(鐵石)이라도 전일(前日)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이 어찌 동(動)치 아니하랴.”

교씨 가로되,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죽임이 쾌(快)하리로다.”

—사씨남정기, 김만중

🔵 교씨는 주동 인물인 사씨를 죽이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함으로써 반동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
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사씨남정기, 김만중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짧은 줄거리 : 한림 유연수의 아내 사씨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교씨가 첩으로 들
어온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고, 이어
사씨도 아들을 낳는다. 장래에 불안을
느낀 교씨는 동청·냉진 등과 짜고 사씨
에게 부정(不貞)의 누명을 씌운다. 동청
과 설매가 장주를 죽여 사씨 짓이라 모
함하니, 한림이 사씨를 내치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쫓겨난 사씨는 술한 시
련을 겪은 뒤 수월암에 가 거처한다. 한
림이 승상 염승과 갈등을 빚고, 집에 머
물면서 사씨의 애매함을 깨닫기 시작하
다. 이를 눈치 챈 동청의 무고(誣告)로
한림은 유배되고, 교씨는 동청을 따라
유씨 집안을 떠난다. 특사로 풀려난 한
림이 설매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어 사씨와 상봉한다. 왕이 염승
일파를 내치고 한림 일파를 등용하니,
동청은 처형되고 교씨는 냉진을 따라간
다. 한림이 사씨를 정실로 복위시키고
교씨를 잡아 처형한 뒤, 사씨와 더불어
화목하게 산다.

다.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

- ① 전형적 인물 : 사회의 어떤 집단, 계층, 특정한 시대, 상황의 의미를 대
표하는 인물. 예를 들면 이태준 작 「돌다리」의 ‘창섭의 아버지’, 이
광수 작 「무정」의 이형식, 「춘향전」의 변 사또, 박지원 작 「허생
전」의 이완 등이 있다.

예문보기

“땅을 밟구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어기지? 땅처럼 응과(應果)가 분명한 게 무어냐? 하늘
은 차라리 못 믿을 때두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헌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돌다리, 이태준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서구적인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비판

짧은 줄거리 : 아들 창섭은 농업학교 진학을 주장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서울로 가 의사가 된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여 성공한다. 그러다가 창섭은 병원 확장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버지에게 내려가 땅을 팔고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땅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아들의 제의를 거절하자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 창섭은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아버지는 자신이 고친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한다.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작인들한테나 맡겨 버리구, 떡 도회지에 가 얹어 소출은 팔아다 모다 도회지에 낭비해 버리구, 땅 가꾸는 덴 단돈 일 원을 벌벌 떨구, 땅으루 살며 땅에 아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걸어만 가구,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냐? 독이 떠나가니 아냐? 거름 한번을 제대로 넣냐? 정 급허게 돼 작인이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이 신의들 주사침 놓듯, 애꿎인 금비(藥品肥料)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흘덜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루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異端的)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돌다리, 이태준

창섭의 아버지는 농토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전형적인 농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개성적 인물 : 개인으로서 독자적 성격을 가진 인물. 예를 들면 박경리 작 「불신 시대」의 진영, 최인훈 작 「광장」의 이명준, 박지원 작 「광문자전」의 광문, 권필 작 「주생전」의 주생 등이 있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주생전, 권필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짧은 줄거리 : 촉주에 사는 주생이라는 청년은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한 뒤 장사를 하면서 강호를 유랑하였다. 그러던 중 주생은 우연히 어릴 때의 고향 친구로 기생이 되어 있던 배도를 만나 인연을 맺고 동거를 하지만, 전에 배도가 드나들던 노승상 집의 딸 선화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안 배도가 사랑을 잃고 빈민하다가 병으로 죽자 주생은 그곳을 떠났는데, 수천 리 밖에서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이웃 노인의 중매로 주생과 선화는 혼약이 성립되어 혼인 날짜를 정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헤어지게 된다.

예문보기

주생의 이름은 회이고, 자는 직경이며, 호는 매천이라 했다. 주생의 집안은 대대로 전당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의 부친(父親)이 촉주의 별가란 벼슬살이를 하면서 촉에서 살게 되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聰明)했고 영민(英敏)했다. 시도 잘 지었다. 나이 열여덟에 태학생이 되었고, 동배들의 추앙(推仰)을 받는 바가 되었다. 주생 자신도 재주와 학문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태학에 다닌 지도 수년이 흘렀다. 계속 과거에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을 했다. 이에 주생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 세상의 인생이란, 마치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깃들여 있는 것과도 같은데, 어찌 명예에 얽매어 더러운 속세에서 허덕이며 아까운 청춘을 보낼까보나.”

이때부터 주생은 과거에 대한 뜻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대신 장사에 뜻을 두었다.

주생이 재산을 헤아려보니 백천 냥이나 되었다. 그 중 반으로는 배를 구입했다. 강호(江湖)를 오가며 남은 돈으로 잡화 장사를 시작했다. 잇속이 있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다.

이래서 아침에는 오땅에 있었고 저녁이면 초땅에 있었다. 그는 장사에만 굳이 구애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

—주생전, 권필

윗글에서 주생은 부정한 과거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장사를 해도 장사에만 구애받지 않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개성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라. 성격의 양상과 그 예

① 성격의 대립적 양상

소심하다	낙관적이다	냉철하다	예리하다
대범하다	비관적이다	다혈질적이다	우둔하다
저돌적이다	우직하다	이지적이다	털털하다
우유부단하다	교활하다	감성적이다	깔끔하다
차분하다	꼼꼼하다	착하다	까다롭다
덜렁거린다	건성건성 하다	악독하다	수더분하다
이기적이다	간사하다	온순하다	현실적이다
이타적이다	충직하다	난폭하다	미래지향적이다
고매하다	의지가 강하다	내성적이다	포용적이다
비열하다	의지가 약하다	외향적이다	배타적이다
용감하다	진실하다		
비겁하다	위선적이다		

② 성격의 양상에 따른 예

❖ 소심하다

예문보기

“불 좀 붙입세다.” 하는 여청[女聲]의 영남 사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린다. 배짱은 계집이다. 하되 남루한 옷 주머니랑 표정 가짐이랑 논다니 계집은 아니어 보인다. 부부인 듯 한집 크게 해 짊어지고 같이 섰는 일본 병정 복장짜리의 총통이로 보아 역시 그러하였다. 한참이나 치어다보니 담배를 코앞에다 내밀어 주었다. 받아 가려고 손이 온다. 그대로 대고 붙이라는 뜻으로 내민 담배를 내어 줬더니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신문지에 침 흥건히 묻혀서 만 것을 가져다 대고 쪽쪽 빨다.

그러느라니 나의 낫색이랑 태도가 좀 오만하여 보였을까마는 계집은 아무 그런 것을 느껴하는 내색이 없이 태연 무심한 얼굴이면서 담배를 붙이고 나서는,

“고맙습네다.”

하고 돌아서고 한다.

—역로(歷路), 채만식

🔗 윗글에서 나는 담배 하나에도 신경을 매우 쓰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소심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대범하다

예문보기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보살피고 문 밖을 나서면서도 그의 얼굴엔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띠었다.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을 눈독 들어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다가 얼굴빛이 변한 채 그만 그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실로 그러한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 버리지도 못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선 모르셨겠죠.”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역로(歷路), 채만식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광복 직후의 무질서와 부정, 금전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정치가들의 각성을 촉구함

짧은 줄거리 : 나는 우연히 요령꾼인 김군을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나 동행한다. 비좁은 열차 안에서 접어있는 공산주의를 역설하지만 시골신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역설한다. 천안에서 승차한 월급쟁이는 지역마다 살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제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 논쟁에만 골몰하는 정치인을 비판한다. 기차는 대전에 도착하고, 나와 김군은 호남선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비오는 새벽에 열차를 기다리나. 객차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간차 폭대기에도 사람이 가득 찰 지경이다. 그때 미군들이 한가로이 탄 객차 다섯 칸이 달려오고 한 늙은이가 함께 타자고 애걸하지만 미군 병정은 무관심한 태도로 차 폭대기를 가리킬 뿐이다. 나는 음산한 정거장에서 언제 올 지도 모르는 기차를 민망히 기다리고 있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광문자전, 박지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양반과 당시 세태에 대한 풍자

짧은 줄거리 : 광문은 청계천변에 사는 거지의 우두머리로, 어느 날 병들어 누워있는 거지 아이를 혼자서 간호하다가 그 아이가 죽어버리자 동료들의 오해를 사게 되어 거기서 도망친다. 그러나 그는 거지들이 버린 아이의 시체를 몰래 거두어 묻어 준다. 이것을 목격한 어떤 부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그를 어느 약국에 소개한다. 점원이 된 그는 그곳에서 정직함과 허욕이 없는 원만한 인간성으로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추한 물골을 생각하고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한다. 그제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小人)이야.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그러. 내 이제 무슨 낮으로 자네를 대하겠나.”
 하고 사과하였다. —광문자전(廣文者傳), 박지원

✔️ 윗글에서 광문은 부자에게 돈을 흠치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받아도 처조카를 고해바치지 않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대범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낙관적이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심청전, 작가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짧은 줄거리 : 심청은 생후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눈 먼 심 봉사 밑에서 자랐으며,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15살 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절에 시주할 공양미 삼백 석을 뱃사람들에게 몸이 팔려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진다. 그 후, 심 봉사는 뽕덕어미란 음란한 여자와 살며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모되고 만다. 한편, 연꽃이 된 심청을 선원이 발견하여 황제에게 바치자 환생하여 황후가 된다. 심청이 맹인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자 심 봉사는 반가움에 눈을 뜨게 된다.

예문보기

심봉사 그제야,

“네가 무슨 이를 너를 소기라마는, 만일 네가 알거드면 지극한 네의 마음 걱정만 되것기로 말하지 못하였다. 악가 너를 기다리다가 저무도록 아니 오기여 하 각갑하여 너를 차자 나가다가 질리 누문 기천의 새져서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기 몽운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여 노코 하는 마리 ‘공양미 삼백 석을 진심으로 시주하면 심전의 눈을 써서 천지 만물을 보리라.’ 허더구나. 뉘뉘에 적어더니 중을 보니고 심각하니, 푼전 일이 업난 중의 삼백 석이 어딴서 난단 말인야. 도로여 후회로다.”

후니 심청이 반기 듯고 부친을 위로후되,

“아부지 걱정마르시고 진지나 잡수시요. 후회후면 진심이 못 되오니다. 아부지 어두은 눈을 써서 천지 만물을 보량이면 공양미 삼백 석을 아무조록 준비하여 몽운사로 올리리다.”

“네 아무리 혼들 빙척간두의 홀 수가 잇슬손야?”

심청이 엇자오되,

“왕상은 구방하고 여름 궁기서 이어 엇고, 광거라 후난 사름은 부모 반찬하여 노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어 먹는다고 산 치 무드려 홀 제 금항을 어더다가 부모 봉양하여쓰니, 사친지 효가 옛사름만 못후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후오니 공양미는 자연이 엇소오리다. 집피 근심마 읍소서.”
 —심청전, 작가 미상

✔️ 윗글에서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낙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비관적이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산업사회에서 직업과 그 존재 이유로부터 소외된 인텔리들의 무능함과 당시 사회의 물질주의에 대한 맹목성 비판

짧은 줄거리 : 인텔리 P는 신문사 사장인 K를 찾아가 취직을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역시 직업이 없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지만 울분만 쌓일 뿐이다. 아내와 별거한 뒤에 형에게 맡겨두었던 아들 창선이 서울로 올라오자 P는 창선을 인쇄소에 맡겨 일을 배우도록 한다.

예문보기

“가령 응……저……문맹퇴치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활은 언론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 개선운동도 좋고……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무얼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P는 K사장의 억단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긋이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퇴치니 생활개선이니 합네 하고 손끝이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오는 것을 그다지 반겨하기는커녕 머릿살을 앓을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하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 원인이, 기억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어집니까?”

“되면 되지 안 될 건 무어야?”

“그건 인도주의란 그것이 한개 공상이니까 그럴겠지요.” “허허 ……그러면 P군은 ××주의 잔가?”

“되다가 찌부러진 찌스러깁니다. 철저한 ××주의자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취직운동도 아니합니다.”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 윗글에서 P는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말을 함으로써 비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냉철하다

예문보기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지도 벌써 오래 되었다. 간교로운 일이 날로 치열하고, 거짓의 행위가 날로 들끓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겼다.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밤 들어 남의 문 밖에 서서 주인을 급히 불러 일부러 그의 노역을 충동시켜 놓는다. 그리고 종말에는 서로 붙잡고 격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인놈이 나의 둘도 없는 벗을 죽였네.”

하고 외치며 그 죽은 시신을 내놓고 장차 관가를 찾아 고발하려 했다. 주인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중한 뇌물을 허비하고서야 일이 바야흐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야말로 험악한 일이고너. 그러나 지극히 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간사한 놈일지라도 그 꾀를 팔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상말에는 ‘세 귀인(貴人)을 사귀기보다 내 한 몸을 삼가는 게 낫다’ 하였으니, 이제 성씨의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이구로.

성희룡(成希龍)은 상주(尙州)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집이 애초부터 넉넉하였다. 흥년을 만나매 식객(食客)이 많이 모여 들었다. 여러 종이 금방 밥상을 들고 나온다. 한 종이 달음질치며,

“어떤 누덕을 진 비렁뱅이가 오더니 까마귀 병아리 차듯이 앓아갑니다.”

한다. 희룡은,

“아마 주린 모양이니 주어 버리렴.”

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종이 또 뛰어와서,

“그릇까지 망태에 넣고 가려는 것입니다.”

한다. 희룡은,

“웁아, 그만둬.”

하고는 그 비렁뱅이를 앞에 불렀다. 그의 얼굴은 도리어 싸울 기색이었다. 희룡은,

“그릇을 팔아먹으려는 건가?”

했다. 그는

“그러구말구.”

“그럼, 내게 팔어.”

“일천오백 냥에서 조금이라두 떨어지면 팔지 않으우.”

희룡은 서슴지 않고 돈 일천오백 냥을 주었다. 비렁뱅이는 한참 주인을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그의 아내를 불러들이며,

“이 이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야.”

하고는 그 묶은 것을 풀어 죽은 아이 하나를 내놓고서,

“내가 불법으로써 남에게 덤비면 그는 반드시 나를 몰아칠 테니, 그가 만일 나를 몰아친다면 나는 곧 이 죽은 아이로써 그를 위협한다면 중한 뇌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더니, 이제 계교를 이룩하지 못하였군요. 이젠 정말 당신이 몸을 삼가는 힘이 있는 까닭이니 모든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성진사전, 이목(李鈞)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세태와 인심의 교활함을 고발하고
처세의 덕을 강조함

짧은 줄거리 : 전문 수록

것을 사과하우.”

하고는 곧 돈과 그릇들을 던져 버리고 가 버렸다.

그리하여 성씨는 마침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성진사전, 이옥(李錫)



윗글에서 성희룡은 비렁뱅이의 억지에 참을성 있게 대처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냉철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다혈질적이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어둠의 혼, 김원일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고발과 비참한 삶의 극복 의지

짧은 줄거리 : 굶주림에 찌든 갑해는 아버지의 검거 소식과 총살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 아버지가 검거되어 있는 지서에서 맞고 나온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며 걱정도 하며 아버지와 의 추역을 떠올리곤 한다. 그 후 이모부가 계신 지서로 가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시체를 본다. 그리고 집안을 떠맡은 기동으로서 힘차게 버티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됨을 느낀다.

예문보기

“아이구,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이고. 성님 성님, 내 팔자 와 이래 험한고. 오메는 살아 생전에 내 콧밥 커서 잘 살게라 카다마는 와 이래 요모양 오폭로 지지리 가시발 길인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오메”

나는 어머니를 부른다. 껌죄죄한 광목 치마자락으로 눈두덩을 훔치던 어머니가 나를 본다. 울상이던 어머니의 얼굴에 노기가 서린다. 눈을 부릅뜬다. 어머니는 눈이 크다. 그래서 겁이 많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겁도 많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의 내게 떨어진다.

“이노무 빌어 목을 자숙아. 집에 처박혀 있잖고 머하러 왔노?”

그러자 이모가 내 편이 되어 준다.

“불쌍한 애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찌찌. 갑해야, 여 온나”

나는 비슬비슬 이모 곁으로 다가간다. 이모는 땀돌에다 장죽을 톡톡 튕다. 두툼하고 미끄러운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거린다.

—어둠의 혼, 김원일



윗글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는 말을 함으로써 다혈질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예리하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모반(謀反), 오상원

시점 : 작가 관찰자 시점

주제 : 정치적 혼란과 조직의 폭력 속에서의 인간성 회복 탐구

짧은 줄거리 : 중학을 마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민은 중학교 동창생의 권유로 비밀 결사에 가담한다. 그러나 첫 번째 암살 임무 수행 때문에 노모의 임종도 못 보고, 두 번째 암살에서는 동료들의 계획에 의해 한 청년에게 암살 누명을 씌운다.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민은, 조국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암살을 일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처형해 버리고 말겠다는 동료들의 협박을 뿌리치고 결사대를 떠난다.

예문보기

여기는 어느 뒷골목에 들어앉은 조그만 선술집. 술 취한 실없는 친구들이 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벽에 대고 오줌을 흘린 탓인지 구석지마다 해가 바뀌어도 축축히 습기가 떠돌고 퀴퀴한 냄새가 풍기고 있다. 아직도 시간이 이른 탓인가, 호젓하다. 다만, 삼삼이 넘어 보이는 두 남자가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무언지 조용히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틈틈이 정객들의 이름이 그들의 입 사이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아 정담(政談)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과는 달리 테이블을 하나 건너서 이쪽 구석지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이십오륙 세 가량의 청년은 자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또 술잔을 훑 들이키곤 하는 품이 보기에도 초조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청년의 눈가에는 일종 불안한 그림자가 이따금 스쳐 지나가고마져 있었다.

“그러니까 삼팔선 철폐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돼.”

마주 앉아 술을 기울이고 있던 둘 중 키골이 장대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술에 젖은 입술을 손등으로 쓱 문질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움직여야 하거든. 지금 삼팔선 철폐 운동을 극구 주도하고 있는 자들 말이야. 실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들 중에는 실지 마음속으로는 삼팔선이 그대로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도 있거든. 특히, 이것은 좌익 계열 중에 농후한데 말이지. 결국 자기들의 세력 기반을 어느 정도 만들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

동근 얼굴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눈을 가진 상대방은 그 어울리지 않

는 눈처럼 음성도 가늘었다.

“그러나 그런 자는 그 즉시로 해치우면 되는 거야.”

가느다란 눈을 가진 상대방은 보기에도 날카로이 얼굴을 찌푸렸다. —모반(謀反), 오상원

✔️ 윗글에서 둥근 얼굴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눈을 가진 상대방은 삼팔선 철폐 운동을 극구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말을 함으로써 예리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우둔하다

예문보기

“터졌네, 터져.”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굴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었다.

“뭘.”

하다가,

“금줄 잡았어,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이는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 들고 살살이 헤쳐보니 탄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그죽죽한 향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돌며,

“이게 원 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댓 돈씩은 넉넉 잡히지.”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웃을지 울어야 웃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 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랬어. 그러게 해 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 설면 덤벼 오는 아내가 한결 예뻐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 주고 그리고 나서 경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 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제,

수재는 시원스러이,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씩 나와유.”

하고, 오늘밤에는 정녕코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뼈다귀도 못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더라고 생각했다. —금 따는 콩밭, 김유정

✔️ 윗글에서 영식은 수재에게 속아 넘어가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우둔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저돌적이다

예문보기

신라 선덕여왕 때 활리역에 지귀(志鬼)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서라벌에 나왔다가 지나가는 선덕여왕을 보고 첫눈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만딸로 성품이 인자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모가 뛰어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찬송을 받았다. 그래서 여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왕을 보려고 거리를 온통 메웠다. 지귀도 그러한 사람들 틈에서 여왕을 한번 본 뒤에는 여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여왕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선덕여왕을 부르다가 그만 미쳐 버리고 말았다.

“아름다운 여왕이여, 나의 사랑하는 선덕여왕이여!”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금 따는 콩밭, 김유정

시점 : 작가 관찰자 시점

주제 : 절망적 현실에서 허황된 꿈과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짧은 줄거리 : 동네 어른들이나 마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재의 말에 속은 영식은 금을 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소작으로 짓는 콩밭을 파 들어간다. 그는 쌀을 빌려다가 산에 제사까지 지내며 금을 캐 수 있기를 빌어보지만, 수재는 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황토흙 속에 금이 있다고 속여 말하고는 그 날 밤으로 출행량을 치려고 마음먹는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지귀 설화,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지귀의 열정적 사랑과 선덕 여왕의 넉넉한 품성

짧은 줄거리 : 선덕 여왕 때에 지귀가 여왕을 사모하다가 미쳐 버린다. 어느 날 여왕이 행차하는 길을 막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린 지귀는 여왕의 명으로 그 행차를 따르게 되었다. 여왕이 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지귀는 탑 아래에서 잠든다. 이를 본 여왕은 금팔지를 뺏아서 지귀의 가슴에 놓아두고 갔다. 잠에서 깬 지귀는 금팔지를 보고서는 가슴이 타들어가 급기야 화신으로 변한다. 지귀가 불귀신이 되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다 여왕은 주문을 지어 주어 대문에 붙이게 하였다. 그 후 백성들은 화재를 면하게 되었다.

소설 이해역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해방 전후, 이태준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해방 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

짧은 줄거리 : 소설가 현은 일본 관헌의 압력에 못 이겨 대동아전기의 번역에 손을 빌려준 일을 두고 괴로워하다가 강원도 어느 산속에 처박혀 낡시질위로 세월을 기다린다. 그곳에서 그는 전통 선비 김직원을 만나 시국담을 주고받으며 울분을 나누기도 한다. 해방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현은 좌익 문인 단체의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이 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영친왕을 받들고자 하는 김직원이 상경하여 현과 좌익과 우익, 친탁과 반탁과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이념적인 화해를 할 수 없게 되자 김직원은 실망하여 서울을 떠나고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현은 종국의 문인 왕국유를 떠올린다.

소설 이해역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매잡이, 이청준

시점 : 외부 이야기 - 1인칭 관찰자 및 주인공 시점, 내부 이야기 - 작가 관찰자 시점

주제 : 사라져 가는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 정신과 '글쓴다는 것'의 어려움

짧은 줄거리 : 소설가인 나는 민태준의 권유로 그가 매잡이에 대해 담사했던 마을을 찾아가 곱돌이란 매잡이를 알게 된다. 그는 사라져 가는 매잡이의 전통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식음을 전폐한 끝에 세상을 등진다. 나는 곽 서방의 죽음에 의문을 갖고, 서울로 돌아와 민형과 함께 이런 궁금증을 풀어 보려 했으나, 민형은 자살했고 세 가지의 유언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형과 매잡이의 죽음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 결국엔 매잡이에 대한 이야기만을 쓰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매잡이이다. 그 근거를 찾지 못해 계속 고심하다가 민형이 남긴 유언을 생각해 내고 유품으로 남긴 봉투를 열어 보니 그것은 민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소설 매잡이였는데 그것은 나의 작품과 일치했다. 그리하여 나는 두 번째 매잡이란 소설을 쓰게 되어 세 편의 매잡이 소설이 있음이 밝혀진다.

지귀는 거리로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쳐댔다. 이를 본 관리들은 지귀가 지껄이는 소리를 여왕이 들을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관리들은 지귀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여왕이 분향을 위해 행차하게 되었는데, 골목에서 지귀가 선덕여왕을 부르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다.

—지귀 설화, 작가 미상

✔ 윗글에서 지귀는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여왕을 사랑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저돌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우유부단하다

예문보기

“당신은 메칠 안 남았다고 하지만 특공대(特攻隊)지 정신대(挺身隊)지 고 악지 센 것들이 끝까지 일인일함(一人一艦)으로 뺏enda면 아모리 물자 많은 미국이라고 일본 병정 수효만치야 군함을 만들 수 없을거요. 일본이 망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같은 걸 기다리나 보요!”

현의 안해는 이 날도 보송보송해 잠들지 못하는 남편더러 집을 팔고 시골로 가자 하였다. 시골 중에도 관청에서 동 뜸 두메로 들어가 자농(自農)이라도 하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 죽자 하였다. 그런 생각은 안해가 꼬드기기 전에 현도 미리부터 궁리하던 것이다. 지금 외국으로는 나갈 수 없고 어디고 하늘 밑인 바에야 그야말로 민불견리(民不見吏) 야불구페(夜不狗吠)의 요순(堯舜) 때 농촌이 어느 구석에 남아 있을 것이냐? 그런 도원경(桃源境)이 없다 해서 언제까지나 서울서 건널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요 소위 시국물(時局物)이나 일문(日文)에의 전향이라면 차라리 붓을 찍어 버리려는 현으로는 이미 생계(生計)에 쫓리는 지 오래며 앞으로 쳐다볼 것은 집밖에 없는데 집을 건드릴 바에는 꼬잡꼬치로 없애기보다 시골로 가 다만 몇 마지기라도 땅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상책이긴 하다. 그러나 성격의 껌대기를 깨치기처럼 생활의 껌대기를 갈아 본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좀 더 정세를 봅시다.”

이것이 가족들에게 무능하다는 공격을 일 년이나 두고 받아오는 현의 태도였다.

—해방 전후, 이태준

✔ 윗글에서 현은 시골로 가자는 아내의 제안에 그 결정을 일 년이나 미루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우유부단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우직하다

예문보기

술이 몇 순배 더 돌았다.

“한데 자네 매값은 많이 준비해 왔나?”

“이 사람, 그 걱정 때문에 술을 못 마시나?”

곽 서방은 당장이라도 매값을 치를 기세로 허리춤을 뒤지는 시늉을 했다.

“정말?”

친구의 눈이 번쩍했다.

“쌀 한 말 값 해 왔어. 아무래도 매를 놓아줄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가 보지.”

“왜, 벌써 그러냐?”

곽 서방은 영문을 몰라 아직 엉거주춤한 채였다.

“매 주인을 찾아 뵈었으니까 이젠 가야지 않나. 술에 몸두 녹혔구.”

“하지만…… 그리고 매값은……?”

“매값? 가지고 가게. 가지고 가서 꾸어 온 사람에게 돌려주게. 보나마나지. 매잡이에게 그런 돈이 있었겠나? 그만 돈을 꾸어 온 것만도 용허네.”

그러면서 술값까지 자기가 치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이? 자네 정 이러긴가. 자네가 이러면 내 도리가…….”

“도리고 뭐고가 있나. 아룻소리 말구 매나 안구 돌아가게. 내게 술값쯤은 있으이.”

결국 그러고 주막을 나왔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곧 장천관 마을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꼭 서방은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것이 옷깃을 꼭 붙잡고 놓아 주질 않는 것 같았다.

—매잡이, 이청준

☞ 윗글에서 꼭 서방은 친구에게마저 매값을 치루려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우직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교활하다(약삭빠르다)

예문보기

차가 브라운 씨의 관사 앞에 닿았다.

성조기를 보면서 이인국 박사는 그날의 적기(赤旗)와 돌려온 시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응접실에 안내된 이인국 박사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대사관으로는 여러 번 찾아갔지만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 년 전 딸이 미국으로 갈 때부터 신세진 사람이다.

벽 쪽 책꽂이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대동야승(大東野乘)> 등 한적(漢籍)이 빼곡히 차 있고 한쪽에는 고서의 질책(帙冊)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 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십이 폭 예서(隸書)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재떨이도 세월의 때문은 백자기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진사(象嵌辰砂) 고려 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렇게 많으니 무엇이 그리 소중하고 달갑게 여겨지겠느냐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브라운 씨가 나오자 이인국 박사는 웃으며 선물을 내놓았다. 포장을 풀고 난 브라운 씨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기쁨을 참지 못하는 듯 탕류를 거듭 부르짖었다.

“참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저 제 성의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안도감에 잇닿은 만족을 느끼면서 브라운 씨의 기쁨에 맞장구를 쳤다.

브라운 씨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호뭇한 기분에 젖었다.

—꺼삐딴 리, 전광용

☞ 윗글에서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에게 고려 청자 화병을 뇌물로 주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교활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이지적이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꺼삐딴 리, 전광용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서류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변절적으로 순응해 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짧은 줄거리 : 이인국이 미 대사관의 브라운과 약속 시간을 맞추려고 회중시계를 바라보다가 과거를 회상한다. 일제 말에 이인국은 일본인에게 야부하여 부자로 살다가 해방 후 친일 행적이 드러나자 이인국은 감옥에 갇혀 고생한다. 극적으로 소련군 스텐코프의 폭을 수술해 준 뒤 그의 도움으로 다시 행복을 누리다. 월남 이후 영어로 체세술을 바꾼 이인국은 미군에게 뇌물을 주고 미국으로 유학 갈 꿈에 부른다.

작품명과 작가 :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주제 : 현실의 굴레를 극복하고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려는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

짧은 줄거리 : 열여덟 살의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수희는 이복 오빠로 만난 현규에서 '비밀 뽀빠'처럼 싱긋하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사랑이기에 그의 곁을 떠난다. 현규가 숙학을 찾아가서 이들은 또 만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 헤어져 잊기로 한다.

그리고 있다가 시선을 들었다. 다음 찰나에 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다. 현규였다.

그는 급한 비탈을 올라오고 있었다. 입을 일자로 다물고 언젠가처럼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니 일자로 다문 입은 좀 슬퍼 보여서 화를 낸 것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그가 이삼 미터의 거리까지 와서 멈추었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 편으로 내달은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동치를 붙든 것이었다.

“그래, 숙희. 그 나무를 놓지 말어.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는 자기도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말하였다. 그 얼굴에는 무언지 참담한 것이 있었
다.

“숙희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고 다 잊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 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테 니까 집은 남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생각해 놓고, 숙희도 어머니 친구 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숙희, 우리에게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 맘을 알아 들어줄까?”

그는 두 발로 땅을 꺾 딛고 서서 말하였다. 나는 느티나무를 붙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의 일은 우리에게서 어찌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부정하고는 살아가지도 못할 게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야. 우리에게 길은 없지 않아. 외국엘 가든지…….”

그는 부르짖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말을 알아 줄까, 숙희?”

나는 눈물을 그득 담고 끄덕여 보였다. 내 삶은 끝나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겠지?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나는 또 끄덕여 보였다.

“고마워. 그럼.”

그는 억지로처럼 조금 미소하였다.

그리고 빙글 몸을 돌려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마주 불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펄펄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 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젊은 느티나무, 강식재

➡️ **윗글에서 그는 숙희를 잘 설득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이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시와 금전 한 쌍을 겹겹이 봉해 가지고 진사님에게 부치고자 하였으나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 후 진사님이 오셨는데, 얼굴은 파리해져서 더욱이 옛날의 기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벽을 헐어 구멍을 뚫고 봉서를 던졌더니, 진사님이 주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펴 보고는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며 차마 손에서 놓지 않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무녀가 대군의 궁에 드나들면서 사랑과 신용을 얻고 있었는데, **이서** **서문을** **돌은** **줄** **바** **계**
이 그 집을 찾아가 보니 나이가 삼십도 못되는 얼굴이 아주 예쁜 여자로써 일찍 광부가 되고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남녀 간의 지고한 사랑

짧은 줄거리 : 선조 때 선비 유영은 안평대군의 옛 집인 수성궁 터에서 홀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궁녀였던 윤영과 김 진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풍류를 좋아하던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를 별궁에 두고 시와 풍류를 배우게 한

는 음녀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진사님을 보고는 기뻐하였지요. 무녀는 진사님을 붙들어 놓고 정으로써 돈우고 밤을 새우면서 같이 자리라 마음먹고는, 다음날 목욕하고 질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꾸밈을 하고 꽃같은 담요와 옥같은 자리를 깔아놓고 계집종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였답니다. 김 진사가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기니, 무녀가,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이기에 이와 같이 훌륭한 분을 뵈옵게 되었을까.”

하였으나, 김 진사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도 않고 있으니, 무녀가 또 말하길,

“과부의 집에 젊은이가 왜 왕래를 꺼리지 않고 자기의 번민을 말하지 않는지요?”

“점이 신통할 것 같으면 어찌 내가 찾아오는 뜻을 알지 못하오?”

이에 무녀는 즉시 영전에 나아가 신에게 절하고 방울을 흔들고 몸을 떨며,

“당신은 정말로 가련합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 년이 못 가서 황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맺힌 한을 백약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 만일 당신이 다행히 편지를 전하게 될 것 같으면 죽어도 영광이겠습니다.” —운영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김 진사는 삼 년 내에 죽을 것이라는 무녀의 점에도 불구하고 대군의 공녀를 사랑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감성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차분(침착)하다

예문보기

주인은 완전히 손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 뒷산 고개를 넘어오는 술바람 소리가 아직도 이따금 두 사람의 귓전을 멀리 스쳐 가고 있었다. 그 술바람 소리를 멀리 뚫 너머 바닷물 소리가 섞이는 듯하였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에도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노형 이야긴 고맙게 들었소.”

이윽고 손이 먼저 주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조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서 노형은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빠뜨려 놓고 있었지요?”

주인이 달빛 속으로 손을 이윽고 건너다보았다.

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을 찾아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 말이오. 그때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 소리 장단을 잡아 주던 오라비가 하나 있었을 겐디. 그런데 노형은 일부러 그 오라비의 이야길 빼놓고 있었지요?”

추궁하듯 손이 주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주인도 이젠 더 이상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여 보였다. —선학동 나그네, 이청준

🔗 윗글에서 손은 주인의 말을 차분하게 분석해서 빠뜨린 내용을 지적함으로써 차분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덜렁거린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선학동 나그네, 이청준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한(恨)의 예술적 승화와 부정적 현실의 초월

짧은 줄거리 : 한 사내가 선학동 주막을 찾아 소리를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옛 이야기를 주막집 주인에게 청하여 듣는다. 30여 년 전 선학동의 주막에 남도 소리꾼 노인이 어린 아들과 눈 먼 소경 딸과 함께 머무르며 앞을 못 보는 어린 딸아이의 소리에 선행이 떠오르는 이 포구의 풍정을 심어 주려고 했다. 한 서너 달 소리를 가르쳐 어린 딸아이의 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도도하고 장중해졌을 때 노인은 홀연히 주막을 떠났다. 세월이 흐른 뒤 주막에 눈 먼 소리꾼 여자가 다시 찾아들었다. 그 이유는 비상학을 보고 싶기도 하였고, 선학동에 아버지의 유골을 묻어 드리는 일과 함께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세상의 한을 풀고 싶어서였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내는 그 여인의 행방에 관심을 쏟고는 자신이 그 여인의 의붓오빠라고 실토를 한다. 이런 고백을 들은 주막집 사내는 그 노인의 무덤 위치를 가리키며 의붓아버지에 대한 한을 풀어버리라고 권유하지만 사내는 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삶이라면서 또다시 떠돌이의 길을 떠난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장끼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조선조 남존여비 사상과 개가 금지 제도에 대한 비판과 풍자

짧은 줄거리 : 장끼와 까투리 부부가 겨울 먹이를 찾으러 나와 눈을 쓸고 뿌린 공을 보고 다룬다. 장끼는 먹으려 하고 까투리는 수상하다고 간밤에 꾸 여러 꿈 이야기를 하며 말리지만 장끼는 기어이 먹다가 밧에 치이고 만다. 까투리가 네 번째의 남편이 죽는 것을 한탄하는 동안, 장끼는 까투리가 수절하기를 당부하며 죽는다. 여러 새를 내세워 초혼을 하는데, 까마귀가 까투리에게 구혼을 한다. 3년상을 내세워 거절하자 이번에는 소문 듣고 온 물오리가 통혼도 없이 아예 혼인길을 차려 왔다가 거절당한다. 이때 조상 왔던 장끼 한 마리가 청혼을 하자, 나이도 들었고 솜맛도 알고 살림할 나이이며 장끼의 풍신도 좋으니 개가하겠다고 허혼한다. 장끼를 따라 까투리가 나서서 아홉 아들과 열두 딸 년들을 데리고 간다.

예문보기

장끼란 놈 하난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가, 고서를 불작시면 콩 태(太)자 든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太古)적 천황씨(天皇氏)는 일만 팔천 세를 살아 있고,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는 풍성이 상승(相承)하야 십오 대를 전해 있고, 한 태조(漢太祖) 당 태종(唐太宗)은 풍진 세계(風塵世界) 창업지주(創業之主) 되었으니 오곡 백곡(五穀百穀) 잡곡(雜穀) 중에 콩 태자가 제일이라. 궁팔십(窮八十) 강태공(姜太公)은 달팔십(達八十) 살아 있고,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李太白)은 기경 상천(騎鯨上天)하야 있고, 북방(北方)의 태을성(太乙星)은 별 중에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上天)하야 태을 선관(太乙仙官) 되오리라.”

까투리 홀로 경황(驚惶) 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려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구벽구벽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드립더 짹 찍으니 두 고패 둥글어지며 머리 우에 치난 소래 박랑사중(博浪沙中)에 저격 시황(狙擊始皇)하다가 버금 수레 마치난 듯 와지곤 똑딱 푸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장끼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장끼는 까투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콩을 찍어 먹다가 밧에 치이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덜렁거리는 성격을 잘 드러낸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동명왕 신화, 삼국유사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동명왕의 신이한 탄생 및 고구려 건국의 경위

짧은 줄거리 :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모수를 아버지로,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을 어머니로 하여 알로 태어난다. 어머니를 돌보던 부여 왕조의 금와왕은 상서롭지 않다 하여 알을 없애려 하였으나 없앨 수 없게 되자 도로 알을 돌려준다. 얼마 후, 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매우 출중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 불리게 되었다. 금와왕의 일곱 아들이 그의 재주를 시기 하여 죽이려 하자, 이를 안 주몽의 어머니는 계락을 써 주몽이 기르던 말 중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도망가게 한다. 염수에 이르러 그들의 추격이 급박해지자 주몽은 하늘을 향해 자신이 하늘과 강의 신의 자손임을 말하며 도움을 청한다. 이에 자라와 고기가 무사히 달아나도록 돕는다. 드디어 주몽은 남쪽 졸본에 이르러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 인접 비류국의 송양왕과 주종 관계를 두고 다투는데 활쏘기, 계락, 주술로 그를 굴복시켜 세력을 떨친다.

❖ 꼼꼼(치밀)하다

예문보기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하였다. 주몽이 마음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들으니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 내가 말을 고를 수 있다.”

하고, 드디어 목마장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어지럽게 때리니 여러 말이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자리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이 말이 준마임을 알고 가만히 허 밑에 바늘을 꽂아 놓았다. 왕이 목마장을 순시하며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서 야원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 말을 얻고 나서 그 바늘을 뽑고 도로 먹었다 한다. —동명왕 신화, 삼국유사

➡ 윗글에서 주몽은 준마를 골라 허 밑에 바늘을 꽂아 살이 빠지게 하여 왕으로부터 이를 얻어내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꼼꼼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건성건성 하다

예문보기

“유대야, 담임이 아까 오라고 한 사람 빨리 교무실로 오래”
한 애가 내게 말을 전해 왔다. 종례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던 담임이 복도에서 나를 불러내어 청소가 다 끝난 뒤 나와 반장 그리고 정수를 교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이다.
함께 교무실로 가려고 찾으니 반장도 정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운동장으로 내려서는 계단 휴게실까지 가 보았다. 거기서 그들은 없었다. 교무실에 먼저 가 있겠거니 하고 계단을 올라서는데 정수가 학교 후문있는 데서 뛰어오면서 손짓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반장은 어디 갔나?”
담임선생은 그날 끝낸 화학시험지의 답안지를 정리하면서 건성으로 물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저희들만 왔습니다.”
나는 정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곁에 선 정수의 숨소리는 아직도 고르지 않았다.
“응, 됐어, 너희들 둘이 해도 되겠지”
짐작했던 대로였다. 우리는 담임선생님의 채점기계로 호출된 것이다. 답안지를 든 담임선생님을 따라 우리는 화학실로 올라갔다. —우상의 눈물, 전상국

➡ 윗글에서 담임선생님은 같이 불렀던 반장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말을 하며 두 아이에게 시험지 채점을 맡기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건성건성 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착하다

예문보기

다음 날 크고 작은 동장은 서쪽 산 밑으로 와서 자기네 개 외에 다른 개도 한 마리 미친 개를 따라 다니는 걸 보았더니 대체 누구네 개인지 하루바삐 처치해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만일 자기네 개가 미친 개를 따라갔던 걸 알면서도 감추어 두었다가 이후에 드러나는 날이면 그 사람은 이 동네에서 다 사는 날인 줄 알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간난이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그냥 두었다. 닳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미쳐 나가지 않았다. 그새 서산 밑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방앗간 먼지를 쏘고 보리방아를 찼었다. 신동이는 밤에 틈을 타 가지고 와서는 방앗간 주인이 다 쓸어 가지고 간 나머지 겨를 할곤 했다. 이런 데 비기면 이제 와서는 바구미 생기는 철이라고 동장네 두 집이 조금씩 자주자주 찼어가는 방앗간의 쌀겨란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이었다.
두 달이 지나도 누렁이는 미쳐 나가지 않았다. —목넘이 마을의 개, 황순원

➡ 윗글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는 작은 동장이 하루바삐 처치해 버리라는 누렁이를 그냥 두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착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우상의 눈물, 전상국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 진실, 호의를 가장한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

짧은 줄거리 : 내가 임시 반장이 되자 이일로 기표를 비롯한 재수파에게 심한 린치를 당한다. 형우가 반장으로 임명되고 반장과 담임은 기표의 비행이 없도록 노력한다. 기표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린 형우는 폭행을 당하고 입원하지만 가해자를 끝내 밝히지 않는다. 담임과 형우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기표는 효자요, 재수파는 의리의 사나이로 미화되고, 이 미담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자 기표는 무기력한 아이로 변한다. 가출한 기표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편지를 남겼고, 담임은 기표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 위해 영화사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자신의 계획을 기표가 무산시켰다며 신경질을 부린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목넘이 마을의 개, 황순원

시점 : 외화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화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신동이로 상징된 한민족의 수난과 강인한 생명력

짧은 줄거리 : 1인칭 관찰자인 나는 배경인 목넘이 마을을 묘사하고 신동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목넘이 마을에 신동이가 나타난다. 신동이가 큰 동장네 검둥이와 작은 동장네 바둑이의 구유를 활자 마을 사람들이 신동이를 미친개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신동이가 홀몸이 아닌 것을 알아챈 간난이 할아버지는 신동이가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신동이에게 남몰래 먹이를 갖다 주며 돌보아 신동이는 새끼를 낳는다. 할아버지는 신동이의 새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중학교 여름방학 때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것임을 밝힌다.

❖ 악독하다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서동지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배은망덕의 처사를 비판하고 야망 있는 태도를 권장함

짧은 줄거리 : 서대주(崔)는 금융성 창고의 곡식을 없애는 공을 세운 후 벼슬을 제수 받고 잔치를 연다. 잔치를 찾아온 다람쥐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서대주의 도움을 받는다. 서대주는 계속되는 다람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자 다람쥐는 원한을 품는다. 계집 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람쥐는 서대주를 백호산군(호랑이)에게 거짓 고발한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람쥐는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반성하고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황금을 주어 돌려보낸다.

예문 보기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매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더불어 향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하물며 내외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일면 교분을 생각하고 다소간 양미를 쾌히 허급하여 칭하는 바를 좇았으나, 서대주는 낭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이 일반(一飯)의 삼토포(三哺)하고 일목(一沐)에 삼악발(三握髮)보다 더하거나 늘 한 번도 치하함이 없다가 무슨 면목으로 또 구활함을 청하매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노하는 것이 신의가 없는 일이어늘, 하물며 포악한 마음을 발하여 은혜 값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청에 송사를 이르고자 하니, 이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이요 은반위수(恩反爲讎)라. 낭군이 만일 송사코자 할진대 서대주의 벌장(罰狀)을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느냐. 옛말에 일렀으되 지은(知恩)이면 보은(報恩)이요 지지(知之)면 불태(不怠)라 하니, 원컨대 낭군은 옛 성인의 책을 널리 보았을 테니 소학을 익히 알리라.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를 갚기를 힘쓰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라 반드시 후일에 낭군을 위하여 사례를 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이나 깊이 살피어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호위인사(好爲人師)로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은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날더러 포악하되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는 남녀의 정이고 여필종부(女必從夫)는 부부의 의이어늘 부귀를 따라 딴 마음을 돌진대, 가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서동지전, 작자 미상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전황당 인보기, 정한숙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전통과 정신주의가 퇴락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고결한 정신주의자의 자부심

짧은 줄거리 : 도장을 파는 수하인은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벼슬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런 친구에게 그는 도장을 파주겠다고 결심한다. 좋은 재료를 찾던 중에 귀한 전황석이라는 도장 돌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수하인은 그 돌을 사서 친구 석운에게 선물로 줄 도장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판다. 그 만큼 만족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도장은 훌륭하게 파지고 수하인은 그것을 석운에게 준다. 그러나 석운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운준의 꼬임에 빠져 그 도장을 처분한다. 그 도장은 수하인의 제자였던 도장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고 그 도장이 수하인의 숨겨짐을 확인한 그는 그 도장을 다시 수하인에게 가져다 건넨다. 수하인은 돌아온 그 도장을 보고 모든 의욕을 잃고 옛날 숨씨도 잃어버린다. 그 후, 수하인은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자신이 판 도장들을 기억에 남는 대로 정리해 책에 찍는데 그는 그 책의 표지에 전황당인보라 찍는다.



윗글에서 다람쥐는 계집 다람쥐의 올바른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집 다람쥐를 바람이 났다고 몰아세워 내쫓고자 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악독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까다롭다

예문 보기

석운(石雲) 이경수(李慶秀)가 선비로서 야인(野人) 시절이랄 것 같으면 문방사우(文房四友) 중 무엇이든 들고가서, 매화옥(梅花屋) 뜰 한가운데 국화주(菊花酒) 부일배로 한담소일하면 옛 정리 그에 더할 것 없으려만, 석운이 벼슬을 했으니 지(紙) 묵(墨) 연(硯)을 즐길 여가가 있을 것 같질 않았다. 정표(情表)라기보다도 수하인(受荷人) 강명진(姜明振)은 벼슬한 친구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을 꼭 선사하고 싶었다.

애당초 시속적인 물건은 그를 생각도 없었고, 그것은 석운의 구미에도 맞을 것 같질 않았다. 석운에게 물론, 자기 자신의 성미에까지 들어맞는 것을 골라내자니 매우 힘들었다. 연(硯)이라면 집에 있는 단계연(端溪硯)이 알맞겠지만, 그것만은 수하인으로서도 내놓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물건이다.

일전 골동품상에서 구한 속칭 운근(雲根)이라고 하는 분석(盆石) 생각도 해보았다. 아아(峨峨)한 봉우리라든지…… 감쳐 흐르는 계곡이라든지, 보면 불수록 그윽한 대자연 속에 묻혀 있는 듯싶은 감이 절로 흐르는 분석 역시 선비의 취미지, 관(官)에 나선 석운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전황당 인보기, 정한숙



윗글에서 강명진은 친구의 선물을 까다롭게 고르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까다로운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수더분하다

예문보기

남대문 안 어느 탁주 장수가 개점(開店)한 첫날 해장국을 끓여서 파루(罷漏) 즉시 가게문을 열고 등불을 걸었다.
한 상주(喪主)가 혼자 들어오더니,
“해장국에 술 한 잔 주오.”
했다. 곧 내가니 또르르 마시고는,
“여기 국하고 술 한 잔 더 따르오.”
또 얼른 내가니 쪽 들이켜고는,
“내 돈이 없소. 이담에 갚으리다.”
탁주 장수는,
“아무럼 어떻겠수.”
그 상주가 나간 후에 술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진종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술을 팔았다.
이튿날도 새벽에 가게문을 열고 등불을 내걸자, 그 상주가 또 들어와서 어제와 똑같이 행동했으나 탁주 장수는,
“아무럼 어떻겠수.”
하였다. —남문(南門) 안 주점(酒店), 작자 미상

✔️ 윗글에서 상주가 해장국과 술을 먹고도 돈이 없어 이담에 갚겠다고 말하자 탁주 장수는 이를 아무 말 없이 허락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수더분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이기적이다

예문보기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小作料)를 조금 감해 달래 보자고 했다.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 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 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의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뺨히어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마음을 먹고 떼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 보았으나 물론 들어 주질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물린다는 근심까지를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년부터는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이,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논 앞에 서서 「모범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벗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치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 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들어 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모범 경작생, 박영준

✔️ 윗글에서 길서는 지주에게 가서 도지를 좀 감해 달라는 말을 해주라는 성두의 청을 거절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이기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남문(南門) 안 주점(酒店), 작자 미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권선징악

짧은 줄거리: 남문 안 주점에 한 상주가 상복을 입고 찾아와 술과 밥을 외상으로 먹고 간다. 그래도 마음 착한 술장수는 화를 내지 않고 매번 외상을 주자 장사가 매우 잘 되어 큰 돈을 번다. 그 후 상주는 술값도 갚아준다. 술장수가 장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팔자 탐욕스런 술장수가 인수한다. 상주가 또 찾아와 술과 밥을 먹고 난 다음 외상을 하자고 하자 술장수는 상복을 잡히라며 화를 내자 상주는 도망을 친다. 상주를 쫓아 가던 술장수가 다른 상주를 외상을 한 상주로 오인하여 상복을 벗기고 뺨을 치자 그 상주는 하인을 시켜 상복을 찾고 술장수를 관가에 고발하니 그를 귀양 보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모범 경작생, 박영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개인적 이익 때문에 일제의 수탈 정책에 이용당하는 한 젊은이의 태도 비판

짧은 줄거리: 농촌 들판에는 모내기 한 창이며 성두네 논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모내기에 바쁘다. 의숙을 사랑하는 길서는 농사 강습회 요원으로 서울을 다녀온다. 길서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호세를 올리자는 친일 관료를 도와준다. 병충해로 농사가 엉망이 되자 수심에 가득 찬 농민들은 길서에게 세금을 좀 깎아 달라는 건의를 지주와 친일 관료들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길서는 아무 말이 없다. 길서의 본색을 알게 된 농민들은 길서의 논에 일제가 박은 '모범 경작생'이란 팻말을 쪼개고 길서는 성두에게 쫓겨 도망친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전우치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전우치의 의로운 행적

짧은 줄거리 : 송도에 사는 전우치라는 사람은 신기한 도술을 얻었는데 빈민의 처참한 처지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천상 선관으로 가장하여 임금에게 나타나 옥황상제의 명령이니 황금 들보를 만들어 바치라 하였다. 황제가 황금 들보를 바치자 그것을 팔아서 곡식을 장만하여 빈민에게 나누어주고 그 뜻을 널리 알렸다. 이를 알고 나라에서 그를 잡아갔으나 탈출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횡포한 무리를 징벌하고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다가 나라에 자수를 하고 무관 말직을 얻어 도둑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나 역적의 혐의를 받아 다시 도망쳤다. 도술로 세상을 회롱하고 다니던 끝에 친한 벗을 위하여 절부(節婦)를 훼손시키려다가 강림 도령에게 제지를 당하고 서화담에게 굴복하여 서화담과 함께 산중에 들어가 도를 닦게 되었다

❖ 이타적이다

예문보기

“이제 팔도에 반포하여 금을 모화 천명을 받들미 올흐니이다.”

상이 홀히 녀이사 팔도에 금을 모화 밧치라 하고, 공인을 불너 일변 금을 불너 장광 척수를 맞초아 지어내니, 왕궁 경수의 집안에 잇는 것은 말도 말고, 팔도의 금이 진하고, 심지어 빈허에 올너 금짜지 벗겨 올니니, 상이 깃그샤 삼일 지게 허시고, 그 날을 기다려 포진하고 등디허엿더니, 진시는 허여 상운이 꺾니에 자옥하고, 향취 웅비하며, 오운 가운디 선관이 청의 동주를 좌우에 세우고 구름에 싸헛스니, 그 형용이 극히 황홀허더라. 상이 빅관을 거느리시고 부복허신디, 그 선관이 전지를 누리와 굴흐디,

“고려왕이 힘을 다하여 천명을 순종하니 정성이 지극한지라, 고려국이 우순 풍조하고 국토 민안하여 복죄 무량허리니, 상연을 공경하여 덕을 닦고 지내라.”

말을 맞치며 두 번으로 쌍동지학을 두고 니려와 요구에 황금들보를 걸어 올너 치운에 싸혀 남 싸호로 ힹ허니, 무지기 하늘에 싸치고 풍우 소래 진동하며, 오식 치운이 각각 동서로 훗히지거늘, 상과 제신이 무수히 사례하고, 룡궁 비빈이 싸에 업디여 감히 우러러 보지 못허더라. 상이 어던에 오르샤 빅관을 조회 밧으실시, 만세를 불은 후 대연을 비설허여 질기시더라.

이 때 우치 그 들보를 가져다가 이 나라 안에서는 처치허기가 난편한지라, 그 길로 서궁 디방으로 향허여, 몬져 들보 절반을 버쳐 헛쳐 팔아 쌀 십만 석을 사고, 다시 선척을 마련허야 난화 실녀 순풍으로 가져다가 십만 빈호에 알마초 분급허여 당장 주려 죽음을 건지고, 다시 이듬해 농량과 종조를 하계 허니, 빅성들은 회출 망외허여 다만 손들을 마조 잡고 여턴 대덕을 칭사흘 썬이오, 관장들도 쏘흔 귀가 막히고 어리동절허야 엇지흔 곡절을 몰나 허더라.

—전우치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전우치는 임금에게 황금 들보를 빼앗아 팔아 쌀을 마련해 가난한 십만 가구에 나누어 주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이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간사하다

예문보기

주파의 귀 엄숙하고 수괴 정디허여 팔 세 동몽곳지 아니허니 상이 더욱 칭션허수 제신을 도라보샤 왈,

“짐이 틱조를 위허여 인조를 엇게 되여시니 엇지 깃부지 아니허리오.”

허시고 왈,

“오날 조회에 두관이 엇지 춤예치 아니허엿누뇨.”

우승상 치식이 쥬왈,

“작일 엄지를 무루옴고 죄종의 잇수와 춤네치 못허엿누니다.”

상이 침음 후 가로스디,

“문죄가 맛당허나 아직 용서허노라.”

하시고 퇴조허시다. 원니 두병의 으드리오 형제가 벼슬이 다 각각 일품의 거허엇스미 만조 문위 그 위세를 두리더라. 이날 텃치 도옹을 총이허시를 보고,

“일후 님신하면 제 아비 원슈를 갑고져 허리니 디환이 될지라 일즉 업시 허리라.”

허고 계교를 싱각허더라.

—조옹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두병의 아들은 천자가 총애하는 조옹을 없앨 계교를 생각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간사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조옹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진충 보국(盡忠報國)과 자유 연애(自由戀愛)

짧은 줄거리 :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 인이 간신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 자살한 뒤, 외아들 조옹은 이두병의 모해를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도망한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옹은 도사를 찾아가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고 우연히 장소자와 만나 혼인 약속을 한다. 이때 서번이 침입하자 조옹이 나아가 이를 물리친다. 한편, 황제를 자칭한 이두병이 조옹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나, 도리어 조옹에게 연패한 끝에 사로잡히고 만다. 천자는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조옹을 제후로 봉한다.

❖ 충직하다

예문보기

호왕이 세자대군을 돌아보면서,
“임장군이 죽기로서 경들을 데려가려 하니, 그 충성을 사랑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무고히 돌아가라.”
하고 다시,
“경들이 만리 타국에 왔다가 돌아가니, 무엇이든지 청할 것이 있으면 청하라.”
만대군이 보화를 청하니, 호왕이 즉시 허락하였고, 둘째 대군은 조선 백성 사로 잡혀온 남녀들을 송환하기를 청하니, 호왕이 원대로 허락하였고 셋째 대군은 속히 돌아가 부모님을 뵈기를 원하니, 그것 역시 허락하더라. 그리고 다시 입을 열어,
“경들은 돌아가도 임장군은 아직 이곳에 머물으라.”
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세자대군을 전송하더라.
이 때가 을유년 칠월이라 임장군이 대군께 말씀하기를,
“전하께서는 먼저 돌아가소서. 신이 형세를 보아 호왕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뒤따라 돌아가오리니, 전하는 평안히 행차하시옵소서.”
대군들이 울면서,
“만리 타국에 무주 고혼이 될 것을 장군의 충성을 힘입어 다시 고국에 돌아가니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라 장군은 속히 돌아와 한가히 보게 하라.”
“그러한 염려는 마시옵소서. 자연히 돌아갈 날이 있사오리니 무사하시옵소서.”
하고 하직을 고하니 떠나는 정이 비할 데 없더라. 대군이 호국 사신을 데리고 남문을 나서 길을 재촉하여 백두산을 바라보고 압록강에 다달으니 이 때가 을유년 가을 구월이었으며, 동궁이 임장군의 충성으로 무사히 돌아옴을 임금께서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
“과인은 경업이 도망하여 죽었나 하였더니, 호국에 들어가 동궁을 구하여 온다 하니, 진실로 충신이라.”
—임경업전, 작자 미상

✔️ 위글에서 임경업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자대군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충직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온순하다

예문보기

얼마 안 되어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열대여섯 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 가닥으로 땀 머리를 깨끗이 단장하고 태도가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다. 가만히 바라보니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흰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라서 등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피운 뒤에 세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피 탄식하여 말하되,
“인생이 박명하기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사오리까.”
하고 품 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祝願文)을 꺼내어 부처님 탁자 위에 드리니, 그 글에 하였으되,
‘아무 고을 아무 동리에 사육는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 앞에 사죄옵니다. 이즈음 번방이 허물어져 왜도적들이 쳐들어와 싸움이 실 날 없사와 봉홧불이 해마다 그칠 날이 없사옵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이 파괴되고 백성을 노략하므로, 친척과 종들이 동서 사방으로 피난하여 정처없이 유리걸식(流離乞食)하였나이다. 수양버들과 흡사한 가냘픈 소녀의 몸이오라, 먼 길에 피난이 여의치 않아 깊은 방 안에 들어 었디어 금식 같은 굳센 정절을 더럽힘이 없었건만, 야속하온 우리 부모, 이 여식의 수절하움이 마땅치 않다 하여 궁벽한 곳에 옮겨 두어 초야에 묻혀 사육이 하마 속절없이 삼 년이나 되온지라, 달 밝은 가을 밤과 꽃 피는 봄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임경업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짧은 줄거리 : 충청도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백마강 만호가 되고, 천마산성 중군이 되어 산성을 축조한 뒤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 임경업은 명나라의 청병대장이 되어 출전, 호국을 구한다. 이후 호국이 강성해져서 조선을 침략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뒤 호왕은 명나라를 치기로 하고 조선에 임경업을 대장으로 하는 조선군의 출병을 요구했는데, 조정에서는 김자점의 간계로 임경업을 파견했다. 명나라와의 옛 의리를 생각한 임경업은 오히려 명나라와 내통하여 호국을 치려 했지만 실패하고 호군에 잡히게 된다. 그러나 호왕은 포로가 된 임경업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그와 세자 일행을 조선으로 송환시킨다. 임경업이 조선으로 돌아오자 간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김자점은 그를 암살하고, 인조는 꿈속에서 임경업의 현신을 보고 그의 충의를 포상하는 한편 김자점을 처형한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시공(時空)을 초월한 사랑

짧은 줄거리 : 전라도 만복사라는 절에서 외롭게 사는 양생이라는 노승각이 있었다. 그는 좋은 배필을 달라고 소원을 빈 다음 부처님과 저포놀이 해서 이기게 되었다. 양생이 탁자 밑에 숨어 기다리고 있자 15, 16세 정도 되는 아름다운 처녀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배필을 얻게 해달라는 내용의 축원문을 읽은 다음 울기 시작했다. 이를 들은 양생은 탁자 밑에서 나가 처녀와 가연을 맺은 뒤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얼마 뒤 양생은 양반집 행차를 만나 자신이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되었다. 양생은 처녀의 부모가 차려놓은 음식을 혼령과 함께 먹고 난 뒤 홀로 돌아왔다. 어느 날 밤 처녀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양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

아침에 고단한 영혼 어이 위무(慰撫)할 길 있사오리까. 흐르는 흰구름과 쉬임없는 물결 소리 들으며 무료한 세월을 보내옵나니, 그옥이 깊은 골짜기에서 평생의 박명박행(薄命薄幸)함을 탄식하오며, 홀로 공규(空閨)를 지키어 기막힌 밤을 보내오니, 임 그리운 이내 정이 채란(彩鸞)의 외로운 춤을 홀로 슬퍼하였삽더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서러운 혼백은 맘돌곳 없사옵고, 기나긴 여름날과 겨울 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참자마다 끊어질 듯하옵나니. 어지신 부처님이시여, 자비와 연민함을 베푸시옵소서. 인간의 한평생이 이미 정해져 있사옵고 선악(善惡)의 업보(業報) 또한 피할 길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하루바삐 꽃다운 인연을 맺도록 배필(配匹)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은 축원문(祝願文)을 마치고 난 후에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耒蒲記), 김시습

✔️ 윗글에서 여인은 부모가 수절을 의심하여 외진 곳에 살게 하였어도 이에 잘 순응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온순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난폭하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배따라기, 김동인

시점 : 외부 이야기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이야기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오해가 빚은 형제간의 운명론적 비극

짧은 줄거리 :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대동강에서 배따라기 노래를 듣고 노래의 주인공인 뱃사람 그를 만나 남다른 사연을 듣게 된다. 아내와 동생과의 관계를 오해한 그는 아내를 내쫓는다. 그것이 오해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아내는 물에 빠져 죽은 뒤였고, 이어 아우도 집을 나가 바다로 떠나자 그도 뱃사공이 되어 아우를 찾아 헤맨다. 그 뒤 6년 만에 그는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 멀리서 들려오는 아우의 배따라기를 들었을 뿐 만나지 못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 사연을 들려주고는 떠나 버린다.

예문보기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한 버릇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은 남겨 두었다가 좀 있다 먹곤 하는 것을 예사로 하였다. 그의 아내도 그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 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랴>고 암호를 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 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트집만 있으면 이년을 — 그는 마음 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에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이년!”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땀다 쳤다. 그의 아내는 상 위에 거꾸러졌다가 일어난다.

“이년! 사나이 발을 짓밟는 년이 어디 있어!”

“거 좀 밟아서 발이 부러뎡췌까?”

아내는 낮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이년!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여잡았다.

“가만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되는 대로 내려 찼었다.

“죽일 이년! 나가거라!”

—배따라기, 김동인

✔️ 윗글에서 형님은 그의 아내를 의심하여 아내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난폭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현실적이다

예문보기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밀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전, 박지원

✔️ 위글에서 허생의 처는 장인바치나 장사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허생전, 박지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과 선비의 자아 각성 촉구

짧은 줄거리 : 허생이 10년 계획으로 글공부를 하다가,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7년만에 중단하고, 장안의 갑부 변씨(卞氏)를 찾아가 1만냥을 빌려 안성장에 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얼마 뒤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한 다음 10만냥을 변씨에게 갚은 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어영대장 이원(李滄)이 찾아와 복벌의 묘책을 묻자, 3가지의 지혜를 제공하였으나 이원이 모두 어렵다고 하자, 이원을 쫓아낸 후 자취를 감추었다.

❖ 미래지향적이다

예문보기

이장 영감은 덕이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물이 베개로 굴러 떨어졌다.
그 날 밤, 이장 영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덕이의 손을 더듬어 잡은 이장 영감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간신히 입을 움직였다.
“학, 학나무를, 학나무를…….”
이장 영감은 잠들 듯이 숨을 거두었다. 흰 수염이 길게 가슴을 내리덮고 있었다.
상여는 돌인데, 상주(喪主)는 덕이 한 사람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뒷산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난을 가던 때처럼 이장 영감이 앞서 갔다.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어번엔 덕이가 맨 앞에 두 주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걸었고, 그 바로 뒤를 봉네가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마한 애송나무를 하나 어린애를 안은 것처럼 안고 따르고 있었다. —학마을 사람들, 이범선

✔️ 위글에서 이장 영감은 죽으면서도 학나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학마을 사람들, 이범선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수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적인 인간의 모습

짧은 줄거리 : 강원도 두메의 학마을 사람들은 학을 그들의 신처럼 믿어 왔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게 된 이후로는 학이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한발과 재난이 이어진다. 일제 말 이장 영감과 박 훈장의 손자들이 질병에 걸려가던 해에는 학이 날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이 되고 징용 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던 해에 학은 어김없이 날아왔다. 그러던 어느 해, 나무에서 새끼 학 한 마리가 떨어져 죽더니 625가 터지게 된다. 공산당이 된 박 훈장의 손자 바우에 의해 농민들은 반동으로 몰렸고, 바우의 충실로 학이 죽자 마을 사람들은 피난이라는 전에 없는 수난을 겪었다. 전쟁이 끝나고 피난살이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에 묵묵히 날아올 학을 기다린다.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금시조(金翅鳥), 이문열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한 예술가의 자기 부정의 예술혼

짧은 줄거리 :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읜 서예가 고죽은 석담 선생에게 맡겨진다. 석담은 예(藝)보다 도(道)를 더 우선시하는데 도보다 예가 더 센 고죽의 작품 세계를 못마땅해 한다. 고죽은 스승과는 달리 보편적 원리로서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서예 역시 독특하게 추구되어야 할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서예가 다른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독자적 세계를 추구해 간다. 중년의 나이에 스승과 대립하기도 했던 고죽은 스승이 죽은 후에 스승이 자기를 총애했음을 알게 되고, 죽음에 임박하여 고죽은 자신의 작품을 회수하여 불태운다. 그는 불꽃에서 자기 부정의 예술혼인 금시조를 확인하며 죽음을 맞는다.

❖ 고매하다

예문보기

스물 일곱 때의 일이었다. 조금한 성취감에 빠진 그는 스승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하를 빠져나왔다. 좋게 말하면 자기 확인을 위해서였고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과시의 기회를 찾아서였다. 그리고 그 뒤 석 달 간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성공적인 유력(遊歷)이었다. 적파(赤坡)의 백일장에서는 장원을 했고, 내령(內嶺), 청하(淸夏), 두산(豆山) 등 몇 군데 남아 있던 영남의 서당(書堂)에서는 진객이 되었으며 더러는 산해전미에 묻혀 부호의 사랑에서 유숙하기도 했다. 석 달 뒤에 그 동안 글씨나 그림을 받아 가고 가져온 종이와 붓값 대신 받은 곡식을 한 짐 지어 돌아올 때만 해도 그의 호기는 만 장이나 치솟았다. 그러나 석담선생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걸 내려놓아라!”

문 앞을 가로막은 석담선생은 먼저 짐꾼에게 메고 온 것을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이어 그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필낭(筆囊)을 벗어 이 위에 얹어라!”

도무지 거역할 엄두가 나지 않는 음성이었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필낭을 벗어 종이와 곡식 꾸러미 위에 얹었다. 그러자 선생은 소매에서 그 무렵에는 당황(唐惶)으로 불리던 성냥을 꺼내더니 거기다 불을 붙였다.

“선생님, 어쩔 작정이십니까?”

그제서야 황급하게 묻는 그에게 석담선생은 냉엄하게 대답했다.

“네 숙부의 부탁도 있고 하니 한 식객으로는 내 집에 붙여 두겠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란 말은 앞으로 결코 입에 담지 말아라. 아침에 붓을 쥐기 시작하여 저녁에 자기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환쟁이를 나는 제자로 기른 적이 없다.”

그 뒤 고죽은 노한 스승의 용서를 받는 데 꼬박 2년이 걸렸다. 처음 문하의 끝자리를 얻을 때보다 훨씬 참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지금 올려 보고 있는 글귀는 바로 그 감격적인 사면(赦免)을 받던 날 석담선생이 손수 써서 내린 것이었다.

글을 씌며, 그 기상은 금시조(金翅鳥)가 푸른 바다를 쪼개고 용(龍)을 잡아 올리듯하고, 그 투철함은 향상(香象)이 바닥으로부터 넷물을 가르고 나를 건너 듯하라…….

—금시조(金翅鳥), 이문열

☞ 윗글에서 석담선생은 고죽의 경망스러운 행동을 나무라며 그가 가져온 곡식과 붓을 불태우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고매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비열(아비)하다

예문보기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콩쥐팥쥐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권선징악

짧은 줄거리 : 조선시대 중엽 전라도 전주 부근에 사는 최만춘은 부인 조씨가 딸 콩쥐를 낳고 곧 병사하자 다시 배씨를 후처로 맞아 딸 팥쥐를 낳았다. 마음씨 착한 콩쥐는 계모와 팥쥐에 의해 온갖 방법으로 학대를 당하나 선녀가 준 신발이 인연이 되어 감사와 결혼한다. 콩쥐는 다시 계모와 팥쥐의 흉계에 의해 연못에 빠져 죽게 되지만 결국 소생하여 복수를 하게 된다.

원래 배씨는 시집을 갔다가 팔쥐라는 딸 하나를 낳은 후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는데, 좋은 중매로 최씨의 가문에 들어온 터였다. 그러나 천성이 요사 간악 사특하였으며, 그 딸 팔쥐 역시 마음이 곱지 못하고 얼굴조차 덕스럽지 못하였다. 그런 만큼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고자질하기가 일쑤요, 콩쥐가 못 되는 것을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상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녀 사이에 소곤거림이 그치면 콩쥐의 신변에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으나 그 부친은 한번 배씨가 눈에 든 다음부터는 배씨의 말이라면 팔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곧이듣게 되니, 허물없는 콩쥐를 오히려 구박하여 마지아니하였다.

하루는 배씨가 두 딸을 불러 놓고,

“시골 사는 계집애가 농사일을 몰라서는 목구멍에 밥알이 들어가지 않으니 콩쥐는 오늘부터 들판으로 김을 매러 다녀라. 팥쥐는 너보다 한 살 덜 먹었고 아직 어린것이라 어찌 김을 맬 수 있으랴만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콩쥐가 제 자식만 사랑한다 할 것이니, 팥쥐 너도 오

늘부터 김을 매러 다니도록 해라.”

하고 팔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집 근처 모래밭을 매게 하고, 공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어 산비탈에 있는 자갈밭을 매게 하는 것이었다.

공쥐는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호미도 나무로 만든 것이라 밭 한 고랑도 못 매어서 목이 부러져 버리니, 마음씨 나쁜 계모로 말미암아 기를 펴지 못하는 공쥐의 마음이야 어찌 다 형언할 수 있으랴? 집에 돌아가면 호미를 부러뜨린 것도 죄목이 될 것이며 김을 얼마 매지 못한 것도 허물이 될 터이니 저녁은 별 수 없이 굶게 될 형편이다. 어리고 약한 마음에 천지가 아득하여져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울고만 있었다. —공쥐팔쥐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배씨는 공쥐를 괴롭히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호미로 밭을 갈게 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비열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의지가 강하다(적극적이다)

예문보기

환웅(桓雄)은 그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의 신단수(神壇樹) 밑에 내려와서 이 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 분을 환웅 천왕(桓雄天王)이라 한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삼백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神雄, 환웅)에게 사람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신(神, 환웅)이 신령한 쑥 한 심지(炷)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忌)한 지 삼칠일(三七日)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壇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桓雄)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 왕검(檀君王儉)이라 일컫는다.

단군은 요(堯) 임금에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 요 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아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 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 다시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에 옮겼다. 그 곳을 또는 궁(弓) — 혹은 방자(方字)로도 되어 있다. — 홀산(忽山)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 한다. 그는 일천 오백 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의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매,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는데, 그 때 나이가 1천9백8세였다. —단군 신화(檀君神話), 작자 미상

➡ 윗글에서 곰은 쑥과 마늘 스무 개로 삼칠일을 견디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의지가 강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수능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단군 신화,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단군의 조선 건국

짧은 줄거리 : 전문 수록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떠내기 인생의 애환

짧은 줄거리 : 영달은 공사판 일이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 먹고 도망치던 중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동행한다. 두 사람은 갑천 방면으로 가던 중 도망친 국밥집 색시 백화를 만나 동행이 된다. 몸을 녹이기 위해 폐가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백화는 과거에 자신이 지내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달에게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백화에게 열차표와 삶을 계란을 사주어 보낸다. 정씨와 영달은 대합실에서 만난 어느 노인에게서 삼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삼포에도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삼포로 가는 기차가 도착해도 발걸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도 영달처럼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시점 :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혼재

주제 : 체험이 다른 두 사람의 삶의 환부(患部)와 그 치유

짧은 줄거리 : 의사인 형은 수술했던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 일을 그만 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형은 625 때 패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소설의 중심 인물은 표독한 이등 중사 오관모, 신병 김 일병, 그리고 서술자인 '나(형)'이었다. 오관모는 전부터 김 일병을 동성애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김 일병의 상처에서 나는 역한 냄새로 그 짓이 불가능해지자 김 일병을 죽이려 한다. 화가인 나는 그 소설을 보고 형의 아픔의 근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형 대신에 써 넣은 소설의 결말을 보고 형은 나에게 병신, 머저리라고 욕하고는 오관모가 김 일병을 죽이고, 뒤따라간 자신이 오관모를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나는 헤인으로부터 절교의 편지를 받았으나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는 진전이 없다. 그런데 '헤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 버린다.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문을 열고, 나는 아픔이 없는 환부의 근원을 자문해 본다.

❖ 의지가 약하다(소극적이다)

예문 보기

영달이가 멋지게 궁둥이를 털면서 일어났다.

“우리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치사하다면, 그런 짓 안해.”

세 사람은 나란히 눈 쌓인 길을 걸었다. 백화가 말했다.

“그럼 반말 놓지 말라고요.”

영달이는 입맛을 찌꺼 다셨고, 정씨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요?”

“집에요.”

“집이 어딘데…….”

“저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삼 년 됐어요.”

영달이가 말했다.

“얘네들은 긴밤 자다가두 툭하면 내일 당장에라도 집에 갈 것처럼 말해요.”

백화는 아까와 같은 적의는 나타내지 않았다. 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달이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엔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두 있어요. 나두 꼭 두 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만발치서 봤어요,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윗글에서 백화는 밤마다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지만 몇 년 동안이나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의지가 약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내성적이다

예문 보기

헤인은 형 친구의 소개로 나의 화실에 나오게 된 학사 아마추어였다.

학생들이 유난히 일찍 화실을 비워 주던 날. 내가 석고상 앞에 혼자 서 있는 그녀의 뒤로 가서 귀밑에다 콧김을 뽐였을 때 그녀는 내게 입술을 주고 나서, 그것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이제 화실을 나오지 않겠으며 나로부터도 아주 떠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단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그 꽃잎같이 고운 입술을 작게 다물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헤인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으며, 떠나보내는 슬픔을 견디는 것이 더 쉽고 훌가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이 화가 났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말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상이 될 수는 없었다.

“청첩장 드리러 왔어요.”

다방에 마주앉아 헤인은 흰 사각봉투를 꺼내 놓으며 말했다.

나는 실없이 웃었다.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윗글에서 나는 떠난다는 헤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못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내성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외향적이다

예문보기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체만척 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려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볼썽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동백꽃, 김유정

✔️ 윗글에서 계집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감자를 얼른 먹으라는 말을 나에게 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외향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포용적이다

예문보기

호장이 그제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부디 우의정 이시백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일시지분(一時之憤)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잊고 이 곳에 와서 도리어 앙화(殃禍)를 받아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골대도 무죄히 죽고 무슨 면목으로 귀비를 뵈오리요. 우리 여차(如此)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호장 등이 갑주(甲冑)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八門陣) 앞에 나아가 복지청죄(伏地請罪)하여 가로되,

“소장(小將)이 천하에 횡행(橫行)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을 한 번 꺾 바 없더니 부인 장하(帳下)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哀乞)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뵈셔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珠簾)을 걷고 나오며 대절 왈(大叱曰),

“너희 등을 싸도 없이 함몰하자 하였더니, 내 인명을 살해(殺害)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심분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뵈셔 가지 말며 너희 등이 부득이 세자·대군을 뵈셔 간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天意)를 따라 거역(拒逆)지 못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뵈셔 가라.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불연즉 내 신장(神將)과 갑병(甲兵)을 모아 너희 등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北京)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잡아 설분(雪憤)하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아니리니 내 말을 거역지 말고 명심하라.”

—박씨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부인은 호장의 애걸을 허락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포용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동백꽃, 김유정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산골 젊은 남녀의 목가적인 사랑

짧은 줄거리 : 주인공인 나는 점순이네 집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계집애이다. 하루는 점순이가 나의 집 수탉을 잡아다가 제집 수탉과 싸움을 붙여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나는 닭이 고추장을 먹으면 싸움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바위틈에 노랗게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그 틈에 앉아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도 보였다. 더욱 놀란 일은 싸움에 져서 빈사지경에 빠져 있는 나의 집 수탉이었다. 나는 찾김에 지게 작대기로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나를 끌어안고 동백꽃 향기 속으로 누워 버린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박씨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짧은 줄거리 : 인조대왕 때의 이득춘의 아들로 태어난 시백이 16세에 박처사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박씨는 그 모습이 흉하여 집안의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 박씨는 할 수 없이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시비 계화와 고독하게 지냈다. 그러나 원래 슬기롭고 도술이 탁월한 박씨는 시백을 장원 급제시키는 등 놀라운 재주를 보이면서도 남편의 구박과 천대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박씨가 허물을 벗어 허룻밤 사이에 절세미인이 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일가는 화락하게 된다. 호왕이 여자 자객 기홍대를 우리 나라에 잠입시켜 이시백과 임경업 등을 죽이려는 것을 박씨가 미리 알고 퇴치한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박씨는 서 울에 침입한 호국 장졸을 무수히 죽여 대공을 세운다. 3차에 걸친 도술전에서 승리하자 국왕은 박씨에게 절충부인을 봉하고 많은 상금을 내린다. 박씨 부부는 2남매를 두고 나이 90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절대 권력의 허구성과 부조리한 현실에 이기적으로 적응하는 소시민적 근성 비판

짧은 줄거리 : 나는 서울에서 Y읍의 초라한 국민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그곳에서, 학급 반장 엄석대가 군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저항해 보지만, 엄석대는 나보다 월등한 학업 성적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터라 서둘러 대항해 볼 방도를 찾지 못한다. 나는 엄석대의 폭력·위압·비행을 담임에게 고발하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식되어 배척받고 소외당한다. 결국,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시혜를 받는데, 6학년이 되자 민주적 의식을 가진 새 담임의 개혁 의지로 엄석대 체제는 몰락하게 된다. 학급은 새로운 체제의 환경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위적거리지만 점차 용기를 얻고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그 후 사회인으로 성장한 나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엄석대에 대한 일종의 향수마저 느낀다. 그러던 중에 피서지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에 붙들려 가는 엄석대와 맞닥뜨린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애국부인전(愛國婦人傳), 장지연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잔 다르크의 애국적 행동을 통한 국권 회복의 의지 고취

짧은 줄거리 : 프랑스는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거듭 패배하여 국토를 상실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깊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오를레앙에서 태어난 잔 다르크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목도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하여 힘을 구한다. 상계의 계시를 받은 잔 다르크는 부모와 이별하고 프랑스의 국왕을 만나 신임을 얻어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여 자기 뒤를 따르게 한다. 잔 다르크는 프랑스의 마지막 보루로, 위기에 처한 오를레앙 성과 리무 성을 탈환하고 왕의 대관식을 행하게 한다. 다시 파리를 탈환하려고 출장했으나, 영국군에게 사로잡혀 화형을 당한다.

❖ 배타적이다

예문보기

내게 대한 박해와 불리는 항상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왔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을 거는 것도 석대와는 전혀 가까워 보지 않는 아이였고, 반 아이들이 떼지어 나를 골리거나 놀려대는 것도 언제나 석대가 없을 때였다. 아이들이 까닭없이 적의를 보이며 놀이에 나를 끼워 주지 않는 것도, 저희끼리 모여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떠들다가 내가 다가가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틀림없이 그 원인은 석대에게 있는 것 같은데도 그는 그 근처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별 것 아니게 보일 테지만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기 짝이 없는 정보 — 이를테면, 어떤 공터에 약장수가 자리잡았고, 어디에 서커스단이 천막을 쳤으며, 공설 운동장에서는 언제 소싸움이 벌어지고, 강변에서는 언제 문화원의 공작 영화가 상영되는가 따위의 소식에서도 나는 언제나 따돌려졌는데, 그것도 겉으로는 석대와 무관했다.

✔ 읽글에서 아이들은 나를 따돌리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배타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용감하다

예문보기

각설 이 씨 연설장에서 여러 인민들이 일제히 약 원수의 군수됨을 조원하는 자가 분분히 거늘 원수가 일러 가르치 그들들이 이제 군중에 들어와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가고자 흘진디 맛당히 죽기를 동망하고 일심 병력하여 덕군을 파출지니 오늘날부터 항오를 차려 군령을 복종하고 귀를 문란치 말라 하고 이 날 형군출새 원근 촌락에 잇는 백성들이 랑초와 기계 등속을 가지고 모도 원수의 군중에 밋치는 자가 락역 부절허더라.

원수가 아리안 십이 박게 이를어 진을 머물고 덕진을 살펴보지 만산 편야한 것이 다 영국 군병이라. 기치 창검은 일광을 가리고 금고 함성은 텃디 진동하는디 일편 외로운 성에 살기 참담한지라. 원수가 제장을 불러 상의하되 이제 영군의 형세 심히 광장하여 낫낫이 날리고 싸움 잘 하는 군수뿐더러 병기도 다 정리하니 형세로 하면 능히 익이지 못홀지라. 우리는 다만 이국 열혈로 빈 주먹만 쥐고 죽기를 무릅써 일제히 아프로 나아갈 싸름이니 비록 칼과 창이 수풀 고고 활살과 탄환이 비오듯 홀지라도 한 걸름도 물러갈 생각 말고 다만 아프로 나아가자 하고 각각 군장을 단속하여 덕진으로 달려드니 사람마다 외국하는 열혈이 분발하여 죽을 마음만 잇고 살 생각은 업스매 날랜 괴운이 총탄하여 한 아이 빙을 당홀 듯홀지라. 영국 군수가 아모리 만코 날레나 이러케 죽기로 싸호는 사람을 엇지 당홀리오. 원수의 들어오는 형세 바다에 조수 밀 듯하매 영국 군수가 주연 한 편으로 헤어지며 분분히 호터지는지라.

각설 이 씨 아리안 성이 에움을 입은 지 임의 일곱 달이라. 타쳐 군수가 구원치 안코 군량 오는 길도 싹혀져 장총이 다 쏘이고 곤핍하여 형세 심히 위티하니 장췌 죠석에 함몰홀 디경이라. 비호로 공작이 근심을 익이지 못하여 홀로 성루에 올라 덕진을 살펴더니 홀연 엇더한 장수가 금기 은갑으로 빙마에 노피 안자 우수로 장검을 두르며 좌수로 몸기를 잡고 군수를 몰아 비호기 들어오니 영국 군수 분분히 추풍 락엽처럼 호터지며 물결기 헤어지는지라.

—애국부인전(愛國婦人傳), 장지연

✔ 읽글에서 약 원수는 아리안 성을 둘러싼 영국 군사를 향해 앞장서 돌진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용감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비겁하다

예문보기

용수는 더 응수하기도 싫었다. 수용소에 있을 때부터 반민 구국 투쟁위원회 지도원으로 날치던 성주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까지 그런 사람과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더구나 해민의 생각이 가슴을 뻘근하게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로 해민의 그림자를 지워 버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용수가 대답을 안 하고 묵묵히 있자 성주는 목소리를 낮추어,
“이북에서 지나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하고 다짐을 받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서 눈을 섬썩섬썩하며 생각에 잠겨 버렸다.

아마 이북에서 날치던 일이 누설될까 걱정을 하는 모양이었다.
“걱정 말어.”

용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미 이남으로 넘어왔고 또 앞으로는 공산주의자와 접촉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자기가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공산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성주다. 그러한 성주를 자기의 입놀림으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성주에 대하여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성주의 말을 듣자 용수의 머릿속에는 이북 수용소에서 자기 때문에 고생을 한 김성갑 생각이 다시 솟아올랐다. 대한부활대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 국군 장교에게 세숫물을 떠다 주었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는 김성갑을 인민재판에 회부하였다.

—용초도 근해, 박영준

✔️ 윗글에서 성주는 용수에게 이북에서 저지른 잘못을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비겁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용초도 근해, 박영준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로 인한 죄의식

짧은 줄거리 : 용수는 625 전쟁 때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남한으로 귀환한다. 판문점을 넘어서서 국군의 군악대 연주에 감격하고 자유를 되찾은 것에 기뻐하지만, 이내 북한에 두고 온 애인 해민과, 포로수용소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된 김성갑에게 자신이 마지못해 6개월 영창 처벌을 주문한 것을 떠올리고 괴로워한다. 수용소에서 반미국투쟁위원회 지도원으로 날치던 성주도 공작원 지령을 받고 귀환하였으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고는 명랑하게 자유를 즐기지만 용수는 김정갑으로 인한 양심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다. 귀환 포로들은 용초도에 집결했다가 고향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용초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용수는 내내 해민의 꿈을 꾸다가 마침내 용초도가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서 김정갑의 시선과 마주치고는 바다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만다.

❖ 진실하다

예문보기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에 성삼이가 삼팔 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었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쭙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학, 황순원

✔️ 윗글에서 성삼이의 사람을 몇이나 죽여 봤냐는 물음에 덕재는 너는 죽여 봤냐고 되물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액션을 보임으로써 진실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학, 황순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는 따뜻한 인간애

짧은 줄거리 : 때는 625 전쟁의 후반기. 국군인 성삼은 수복된 고향 마을에 치안대원의 사명을 띠고 오랜만에 찾아온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지금의 고향은 옛날의 고향이 아니었다. 뜻밖에 단 짝이었던 덕재가 농민 부위원장으로 골려와 있는 것을 발견한 성삼은 몹시 씁쓸해진다. 성삼은 덕재를 호송하는 중 덕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직을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게 된다. 덕재가 꼬맹이와 결혼했다는 말에 웃음까지 나오려고 한다. 덕재가 도망을 안 간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농토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성삼은 덕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다. 산길을 가다가 때마침 학 때를 보게 된 성삼은 그 옛날 어른들 몰래 학을 풀어 주던 때를 생각하고 덕재에게 학 사냥이나 하자며 은근히 도망치라고 한다.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호질, 박지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조선 시대 양반의 도덕적 위위익 풍자

짧은 줄거리 : 대호(大虎)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의사 고기는 의심이 나고 무당 고기는 불결해서 먹을 수 없고 결국 청렴한 선비 고기를 먹기로 결정하여 마을로 내려온다. 이때 고을에 도학(道學)으로 이름난 북광 선생이라는 선비는 동리자라는 청상과부 집에 들러 밀회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엿들은, 과부의 성이 다른 아들 5명은 고명한 선생이 그럴 리 없으니 이는 분명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 믿고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 방을 습격하였다. 허겁지겁 도망치던 북광 선생은 분노구렁이에 빠졌는데 겨우 기어 나오니 대호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탄식하며 유학자의 위선과 아침, 이중인격 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북광 선생이 목숨만 살려주기를 빌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아침에 농사일을 가던 농부들이 주위에 서서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 위선적이다

예문보기

북광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새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 재계(齋戒)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디.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디.”

북광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 때 새벽 일찍 발 갈라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광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호질, 박지원

✔ 위글에서 북광 선생은 호랑이에게 목숨을 구걸하다가도 호랑이가 가고 난 다음 이 모습을 본 농부의 질문에 하늘에 머리를 숙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위선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2)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가. 직접적 제시 방법

① 논평 : 인물의 한두 가지 성격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소설 이해 객 놀이기

작품명과 작가 : 감자, 김동인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환경으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피폐해 가는 인간의 모습

짧은 줄거리 :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자란 여주인공 복녀는 돈에 팔려서 만난 게으른 남편 때문에 결국 칠성문 밖 빈민굴로 쫓겨가 살게 된다. 어느 날 송충이 잡이에 나갔다가 감독의 유혹에 빠져 쉽게 돈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뒤 중국인 왕서방네 채마밭에서 감자를 훔치다가 들켜 그 때부터 공공연한 매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왕서방이 다른 처녀와 혼인하게 되자 복녀는 질투심에 불타 낫을 들고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왕서방에게 살해된다. 복녀의 시체를 두고 남편, 왕 서방, 한의사간에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뇌일혈로 죽었다는 진단으로 복녀는 공동묘지로 실려 간다.

예문보기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탄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솔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개울에서 먹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다섯 살 나해 동네 홀아비에게 팔십 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 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팔십 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동네 노인의 주선으로 소작밭깨나 얻어 주면, 종자만 뿌려 둔 뒤에는 후치질도 안하고 김도 안 매고 그냥 버려두었다가는, 가을에 가서는 되는 대로 거두어서 ‘금년은 흉년 입네’ 하고 전주 집에는 가져도 안 가고 자기 혼자 먹어 버리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한 발을 이태를 연하여 부쳐 본 일이 없었다.

—감자, 김동인

✔ 위글에서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고 그 행적에 따른 인물의 성격을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이 논평하는 부분은 직접적 제시 방법이다.

② 요약 : 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방법

예문보기

원자허(元子虛)란 사람이 있었다. 비분강개한 선비로서 기개가 남달리 뛰어났던 까닭에 오히려 세상에 용납되지 못해서 벼슬길도 시원치 못했다. 집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다. 관운이 없는 것을 비유하면 옛날 중국 오대(五代)때 나은(羅隱)과 같았고, 집이 가난한 것을 말하자면 송나라 때의 원헌(原憲)과 같았다. 나은은 이름 높은 시인이었으나 열 번이나 과거에 낙방하였고, 원헌은 공자의 손자로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다.

이처럼 원자허는 비운의 쓰라림과 가난의 슬픔을 겪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밭갈이하고 밤에는 돌아와 옛 성현들의 글을 읽었다. 불을 켜 기쁨이 없어 바람벽을 뚫어 이웃집 불빛을 빌어 책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주머니에 반딧불을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책 위에 놓고 글을 읽기도 하면서, 꺼내어 책 위에 놓고 글을 읽기도 하면서, 시험해 보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의 지조와 높은 절개가 이와 같았다. —몽유록(夢遊錄), 원호(元昊)

✔ 읽글에서는 요약과 행동 제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행동 제시는 간접적 방법이나 '비분강개한 선비로서 기개가 남달리 뛰어났던 까닭에 오히려 세상에 용납되지 못해서 벼슬길도 시원치 못했다' '이처럼 원자허는 비운의 쓰라림과 가난의 슬픔을 겪었다' '그의 지조와 높은 절개가 이와 같았다' 등의 구절에서 인물의 성격을 요약하는 부분은 직접적 제시 방법이다.

나. 간접적 제시 방법

① 외양 묘사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예문보기

C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소군으로 유명하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개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과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 습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횡령 벗겨진 이마라든지, 술이 적어서 법대로 쪽찌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 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B 여사가 질겁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으레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 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B 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 읽글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다음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논평은 직접적 제시 방법이나 묘사는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몽유록(夢遊錄), 원호(元昊)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모순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짧은 줄거리 : 원자허는 가을밤에 달빛을 이용하여 독서를 하다가, 밤이 깊고 정신이 어지러워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었으므로 꿈을 꾸게 된다. 원자허가 몽중에 신선이 된 기분으로 어떤 강변에 다달아 휘파람을 불면서 시 한 수를 읊고 있다가, 한 선비의 영접을 받는다. 그 선비를 따라 정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왕자의 의관을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왕자가 바로 단종이었다. 대부분의 의관을 한 다섯 사람이 그 왕자를 호위하고 있었다. 원자허가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 알현하고 좌정하는데, 원자허는 말석에 앉는다. 사육신 중에서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이 차례로 울분을 담은 시를 읊고, 끝으로 원자허가 시를 읊는다. 출연 한 남자가 뛰어 들어와 왕에게 절하고, 5인을 돌아보며 칼을 뽑아 5인을 옥하면서 비가(悲歌)를 부르며 검무를 춘다. 그는 유응부이다. 이 순간 잠에서 깨니 일장춘몽이었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위선적인 인간성 풍자

짧은 줄거리 : B여사는 C여학교의 사감으로서 얼굴은 굴비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못생겼으며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몹서리 칠 만큼 엄격하고 매서웠다. 특히 남학생에게 온 러브레터가 있으면 당사자 여학생은 사감실로 끌려가 혹독하게 문초를 당해야 했다. 남자를 마귀로 표현했고 연애가 자유니 신성이니 하는 것은 악마가 만들어낸 소리라고 했다. 남자의 면회는 시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의 면회도 따돌리기가 일쑤여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해 교장의 설득까지 들었어도 그 버릇은 고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방에 자던 세 학생이 잠을 깨어 남자가 이야기 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 간다. 그 곳은 바로 B사감의 방이었다. 그것을 본 첫째 처녀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둘째 처녀는 불쌍하게 생각했으며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눈물을 씻는다.

② 대화 :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홍도(紅桃), 유몽인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홍도라는 주인공의 신의와 전쟁으로 인한 한 가정의 수난

짧은 줄거리 : 홍도는 부모에게 간청하여 정생과 혼인하여 그 다음해에 아들 몽석을 낳았다.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정생이 중군하여 남원을 지킬 때 홍도는 남장으로 남편을 따라갔으며, 몽석은 할아버지를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정생과 홍도는 헤어졌다가 중국에서 만나 절강 땅에서 살면서 아들 몽진을 낳아 중국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뒤 난리를 만나 정생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몽진의 장인을 만나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 몽석과 같이 모였다. 홍도는 몽진 부처를 데리고 제주도를 거쳐 남원으로 돌아와 한 집이 행복하게 지냈다.

예문보기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남원에 정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통소를 잘 불렀고 노래도 잘했다. 의기가 호탕해서 사사로운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 반면 학문에는 게을렀다.

장가 들 때가 되어, 그는 같은 고을에 사는 양가의 규수 홍도라는 처녀에게 구혼했다. 두 집에서는 혼사를 정하고 날짜를 기다렸다.

그러나 홍도의 아버지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정생이 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홍도는 아버지의 결심을 전해 듣고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혼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날짜까지 정했으니, 마땅히 처음에 정한 사람과 예식을 행할 일이지, 중도에서 배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도의 아버지는 그 말에 느낀 바 있어, 드디어 정생과의 결혼을 허락했다.

—홍도(紅桃), 유몽인

✔ 윗글에서 홍도는 한 번 정한 일을 중도에서 배신할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신의 있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시점 :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혼재

주제 : 체험이 다른 두 사람의 삶의 환부(患部)와 그 치유

짧은 줄거리 : 의사인 형은 수술했던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일을 그만 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형은 625 때 패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소설의 중심 인물은 표독한 이등 중사 오관모, 신병 김 일병, 그리고 서술자인 ‘나(형)’이었다. 오관모는 전부터 김 일병을 동성애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김 일병의 상처에서 나는 역한 냄새로 그 것이 불가능해지자 김 일병을 죽이려 한다. 화자인 나는 그 소설을 보고 형의 아픈 근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형 대신에 써 넣은 소설의 결말을 보고 형은 나에게 병신, 머저리라고 욕하고는 오관모가 김 일병을 죽이고, 뒤따라간 자신이 오관모를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다. 나는 헤인으로부터 절교의 편지를 받았으나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럼에는 진전이 없다. 그런데 ‘헤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 버린다.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문을 열고, 나는 아픔이 없는 환부의 근원을 자문해 본다.

예문보기

<나>는 어렸을 때 노루 사냥을 따라간 일이 있었다. 그 즈음 <나>의 고향 마을에는 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꼭꼭 사냥꾼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땃배지를, 겨울과 봄으로는 노루 사냥을 했다. 겨울이면 특히 마을 사람 가운데 낄품 물이꾼을 몇 사람씩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양술을 산으로 메고 가서 사냥한 것을 끓여 먹었다. 겨울철 할 일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물이꾼을 자원했고, 사냥꾼이 뜸해지면 그들은 사냥꾼이 마을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눈이 산들을 하얗게 덮은 어느 겨울 날, 방학을 맞아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있던 <내>가 그 물이꾼들에 끼어 함께 사냥을 따라 나선 일이었다. 그 날은 이상하게도 한낮이 기울 때까지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나>는 다른 어른 한 사람과 함께 어느 능선 부근 바위 틈에서 언 밥으로 시장기를 쫓고 있었다. 그 때 능선 너머에서 갑자기 한 발의 총 소리가 울려왔다. 그 총소리에 대해서 형은 이렇게 쓰고 있었다.

<나는 총 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것이 갑자기 멈춰 버린 것 같았다. 싸늘한 음향 — 분명한 살의와 비정이 담긴 그 음향이 넓은 설원을 메아리쳐 올 때, 나는 부질없는 호기심에 끌려 사냥을 따라 나선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알은 노루를 맞지 못했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지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눈을 선명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거니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

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곧 굉장히 앓아누웠기 때문에, 다음 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만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치곤하였다.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 윗글에서는 '나가 어릴 때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자신이 노루를 직접 죽인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저지른 일처럼 껍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까지 느끼고 있음을 보고 독자는 '나의 성격이 순박하다고 읽어나야 하므로 이는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

④ 명명법(命名法) : 인물의 성명이나 별명을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예문보기

웅달 우물과 웅연못이 있는 웅진골 웅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으니, 성은 웅가요, 이름은 고집이었다. 성미가 매우 괴팍하여 풍년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심술 또한 맹랑하여 매사를 고집으로 버티었다. 살림 형편을 살펴보건대, 석송(石崇)의 재물이나 도주공의 드날린 이름이나 위세를 부러워하지 않을 만하였다.

앞뜰에는 노적이 쌓여 있고 뒤뜰에는 담장이 높직한데, 울 밑으로는 석가산이 우뚝하다. 석가산 위에 아담한 초당을 지었는데, 네 귀에 풍경이 달렸으며 바람 따라 쟁그렁 맑은 소리 들려오며, 연못 속의 금붕어는 물결 따라 뛰놀았다. 동편 뜨락 모란꽃은 봉오리가 반만 벌어지고, 왜철쭉과 진달래는 활짝 피었더니 춘삼월 모진 바람에 모두 떨어졌으며, 서편 뜨락 앵두꽃은 담장 안에 곱게 피고, 영산홍 자산홍은 바야흐로 한창이요, 매화꽃도 복사꽃도 철을 따라 만발하니 사랑치레가 찬란하였다.

—웅고집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는 명명법(命名法) 즉,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어 붙여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성격을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제시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름으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 [웅고집 → 고집이 웅골한 사람]

⑤ 심리 분석 :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제시하는 방법

예문보기

귀성한 후, 칠팔 개 삭 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면 같이 짓두들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백까지 두식(蠹蝕)하였다. 나의 몸을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었다. 더구나 육칠월 성하를 지내고 겹옷 입을 때가 되어서는 절기가 급변하여 갈수록 몸을 추스르기가 겨워서 동네 산보에도 식은땀을 줄 줄 흘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려면 두세 마디째부터는 목침을 찾았다.

그러면서 무섭게 양분(昴奮)한 신경만은 잠자리에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 해, 세 해 울 때까지 옆치락뒤치락거리다가 동이 번히 뜨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 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드러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膠着)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하여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웅고집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심술맞고 인색한 인물에 대한 풍자

짧은 줄거리 : 웅진 고을에 사는 웅고집은 심술 사납고 인색하며 불효한 인간으로서, 거지나 종이 오면 때려서 쫓기 일쑤였다. 이에 도술이 능통한 도사가 학대사를 시켜 웅고집을 징계하고 오라 했으나 오히려 매만 맞고 돌아왔다. 화가 난 도사가 집으로 가짜 웅고집을 만들어 웅고집의 집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다투게 하였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관가에 송사까지 하였으나 진짜 웅고집이 도리어 저서 집을 쫓겨나고 결식 끝에 비관 자살하려 하는데 도사에게 구출된다. 도사에게서 받은 부적으로 가짜 웅고집을 다시 초인으로 만든 그는 크게 참회하고 독실한 불교신자가 된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젊은 지식인의 이상과 절망적인 현실

짧은 줄거리 : 불면증과 신경증으로 몹시 예민한 정신의 소유자인 나에게 중학교 시절 청개구리를 해부하던 일이 생생히 기억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던 중 H의 권유로 나는 남포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삼 원 오십 전에 삼충집을 지었다는 광인 김창역을 만나면서, 그를 자유와 오뇌의 정수라고 보며 욕구를 구현한 자유민이자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김창역은 느닷없는 부모와 아내의 잇달은 죽음과 뜻하지 않은 감옥생활 및 재취한 아내의 배신으로 광인이 되었고, 마침내는 계시를 받아 세계 평화와 절대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나는 훗날 김창역의 실종 소식을 전해 듣는다.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이년 시대에 박물 실험실에서 수염 털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주정병(酒精瓶)에 채운 후에 옹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뾰족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박힌 채 발딱발딱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춘향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짧은 줄거리 :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퇴거(退妓)의 딸 춘향이 광한루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남원부사가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별한다. 신관사또인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나 춘향은 일부종사를 내세워 거절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다.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어사가 되어 돌아와, 탐관오리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어사출두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아 백년해로한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봄봄, 김유정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의문하고 교활한 장인과 어리송한 데릴사위 사이의 해학적 갈등과 대립

짧은 줄거리 : 내 아내가 될 점순이는 열여섯 살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너무 작다. 나는 점순네 데릴사위로 3년 7개월이나 일을 해 주었건만 심술 사남고 의문한 장인은 성례시켜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점순이는 왜 크지 않는지 고민을 하기도 한다. 그러는 가운데 점순이는 나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장인에게 조르라’고 투정을 부리자 장인과 함께 구장에게 가서 단판을 지으려 했으나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어느 날,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에 장인과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장인이 나를 땅바닥에 매치자 나는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쥔다. 장인은 놓으라고 헛손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지만 나는 더욱 세게 움켜쥔다. 할아버지를 연발하던 장인이 점순이를 부르자, 점순이와 장모가 나와 갑자기 장인의 역성을 드는 바람에 오히려 얻어맞기만 하고 다시 일하러 나선다.

☞ 윗글에서 나가 혼백까지 두식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예리한 그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간접적 성격 제시에 해당한다.

⑥ 갈등 : 갈등의 원인과 진행 양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예문 보기

삼십도에 맹장하니 옥 같은 두 다리에서 유수 같이 나는 피는 두 다리에 어리었네.

춘향이 점점 포악하되,

“소녀를 이리 말고 살지능지하여 아주 박살 시켜주면 초혼조 냇이 되어 적막공산 달 밝은 밤에 도련님 계신 곳에 나아가 파몽이나 하여이다!”

말 못하고 기절하니 엎드렸던 형방도 눈물 지고, 매질하던 집장사령도 혀를 끌끌.

“사람의 자식은 못보겠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또 모지도다! 저것을 때리면 땅이나 치제. 저것 몸에 매질하다니.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사또 모지도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사람은 차마 못 보겠네!”

사또 그저 분이 남아,

“네 그년 항새, 족쇄하고 칼머리에 인봉하여 엄수옥중하라!” —춘향전, 작자 미상

☞ 윗글에서 변 사또는 죄 없는 춘향을 두고 노여워하는 갈등을 보임으로써 포악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⑦ 버릇습성 : 인물의 버릇이나 습관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예문 보기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구 웃섞이(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죽히 빠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갠스리 골을 내려고 든다. 뱀두 뱀이래야 좋으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삼 당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봄 · 봄, 김유정

- ✔ 윗글에서 내가 장인이 방장님, 빙모님이라고 부르라는 말을 자주 잇는 것은 버릇으로 어리송한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⑧ 취미 : 인물의 취미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예문보기

세종대왕의 왕자 팔 대군 중에서 셋째 왕자인 안평 대군이 가장 영특하였지요. 그래서 상이 매우 사랑하시고 무수한 전민과 재화를 상사하시니, 여러 대군 중에서 가장 나았사옵더니, 나이 십삼 세에 사궁에 나와서 거처하시니 수성공이라 하였습니다.

유업(儒業)으로써 자임(自任)하고, 밤에는 독서하고 낮에는 시도 읊으시고 또는 글씨를 쓰면서 일각이라도 허송치 아니하시니, 때의 문인재사들이 다 그 문(門)에 모여서 그 장단을 비교하고, 혹 새벽닭이 울어도 그치지 않고 담론(談論)을 하였지마는, 대군은 더욱 필법(筆法)에 장(長)하여 일국에 이름이 났지요. 문종대왕이 아직 세자(世子)로 계실 적에 매양 집현전 여러 학사와 같이 안평대군의 필법을 논평하시기를,

‘우리 아우가 만일 중국에 났더라면 비록 왕희지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찌 조맹부에 뒤지리오.’

하면서 칭찬하시기를 마지않았사옵니다.

—운영전, 작가 미상

- ✔ 윗글에서 안평대군이 독서, 시 읊기, 글씨 쓰기 등을 취미로 삼아 좋아한다고 한 것은 학구적인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⑨ 자아 발견자아 각성 : 등장인물이 자신의 처지나 입장을 밝히거나 잘 잘못을 판단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예문보기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흐트러,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서 부서지는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서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뒷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지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 메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 가며 방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든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유예, 오상원

- ✔ 윗글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가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자아 발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한 개인이 무의미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이치적인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운영전, 작가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남녀 간의 지고한 사랑

짧은 줄거리 : 선조 때 선비 유영은 안평 대군의 옛 집인 수성궁 터에서 홀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궁녀였던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풍류를 좋아하던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를 별궁에 두고 시와 풍류를 배우게 한다.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온 김 진사에게 반하고, 둘은 서로의 연정을 편지로 주고받는다. 운영은 궁 밖으로 빨래하러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김 진사를 만나 회로를 푼다. 이후, 운영은 밤마다 궁궐 담을 넘어오는 김 진사와 사랑을 나눈다. 안평 대군이 이 사실을 알고 대로하여 궁녀들을 문책하니 운영은 자책감 때문에 자결한다. 김 진사는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비는 재를 올린 다음, 슬픔이 병이 되어 죽는다. 김 진사와 운영은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한다. 유영이 다시 졸다가 깨어나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기록한 책만 남아 있었다. 유영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다음은 알 수가 없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유예, 오상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겪는 인간의 고뇌와 죽음

짧은 줄거리 : 주인공 나의 부대는 북으로 전진하던 중 너무 깊이 들어간 나머지 적에게 포위되어 하나 둘 죽어간다. 눈과 기아와 추위와 싸우며 적의 포위망을 벗어났을 때는 겨우 여섯 명만 남는다. 어둠을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도중 다시 적에게 노출되어 공격을 받았다. 주인공과 부상당한 선임하사를 빼고는 다 죽었다. 선임하사도 부상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죽는다. 주인공은 혼자 남쪽을 향해 가던 중 마을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을은 적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아군의 총살 장면을 목격하고 적에게 총을 쏘다가 자신도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된다. 총살형을 기다리는 유예 기간에 주인공은 과거와 죽음 뒤의 일들을 생각한다. 마침내 나는 총살을 당하고 눈 위에서 의식을 잃어간다.

⑩ 선택권 행사 : 등장인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허생전, 박지원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무능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과 선비의 자아 각성 촉구

짧은 줄거리 : 허생이 10년 계획으로 글공부를 하다가,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7년만에 중단하고, 장안의 갑부 변씨(卞氏)를 찾아가 1만냥을 빌려 안성정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얼마 뒤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한 다음 10만냥을 변씨에게 갚은 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여영대장 이원(李源)이 찾아와 복벌의 묘책을 묻자, 3가지의 지혜를 제공하였으나 이원이 모두 어렵다고 하자, 이원을 쫓아낸 후 자취를 감추었다.

예문보기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든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려다.”
하고 돈 오십만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위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냥은 우리 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생전, 박지원

➡ 읽글에서 허생이 글을 아는 자를 고르는 선택권을 행사한 것은 학문을 화근으로 생각하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⑪ 의지가 들어 있는 행동이나 동기가 부여된 행동 :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지나 행동의 동기를 드러냄으로써 성격을 밝히는 방법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도시적 삶이 가져다주는 정신과 문화의 황폐화

짧은 줄거리 : 성공의 신화를 좇아 도시로 떠나간 많은 시골 젊은이와 같이 누이도 2년 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다. 그러나 도시의 삶에 실패, 귀향한 누이는 완벽한 침묵에 빠져,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오빠인 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도시로 나온다. 거기서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는 시골을 떠나 작가연하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인물로서, 도시화의 물결 속에 파탄되어 가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누이가 침묵에 빠진 이유를 이해한다. 즉, 누이는 도시에서 개인주의와 군중 속에서 느낀 고독에 의해 침묵하게 된 것이다. 얼마 후, 누이는 시골 청년과 결혼을 하고 출산하자 나는 축전을 띄운다.

예문보기

도시에 갔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여간해선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누이는 돌아왔다. 그러나 옷에 먼지를 묻혀 오듯이, 도시가 주었던 상처와 상처의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다. 무수히 조각난 시간과 공간, 무수히 토막난 언어와 몸짓이 누이의 기억을 이루고 있으리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무수한 것들, 별들처럼 고립되어 반짝이는 그 기억들이 누이의 가슴에 박혀서 누이의 침묵을 연장시키고 혹은 모든 것을 썩어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그 파편들은 무엇이냐? 그리하여 나는 동화 속의 인물처럼 말하였던 것이다. — 이번엔 내가 가 보지.

내가 사랑하고 만족해 있던 황혼과 해풍에 깨끗한 맹세조차 했었던 것 같다.
꽤 오래 전에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누이가 결혼을 한 것이다. 해풍 속에서 살결을 태우며 자라난 젊은이와. 만일 그때 누이가 내 곁에 있었다면, 그 애가 알아 먹든 못 알아 먹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 그러나 사람들에게 제각기의 밤이 있듯이 제각기의 애기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고 동시에 배반하고 그러면 한편에서도 사랑하고 동시에 배반하고 요컨대 심판대(審判臺)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을 상상해 보지만 얼마나 난해(難解)한 순환(循環)일까. 황혼과 해풍 속에는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고독했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김승옥

➡ 읽글에서 내가 도시로 온 것은 누이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며 동기가 부여된 것이어서 호기심 많은 나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의 대비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화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설명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한 극적인 성격 묘사
성격의 분석 설명	행동의 묘사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설명	성격에 대한 간접적 표현 방법
설명적, 말하기(telling)	묘사적, 보여주기(showing), 극적 방법
추상적인 설명으로 사건 진행을 방해하기 쉬움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데는 불편함
주로 요약, 설명, 논평, 심리 분석 등의 방법이 쓰인다.	주로 외양 묘사, 버릇·습성, 태도, 취미, 갈등, 행동, 말투와 대화, 고백, 과거의 일화, 이름 등의 방법이 쓰인다.

3 방법은 있다



(1) 인물의 성격 알아내는 방법

- ①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생각해 본다.
- ②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
- ③ 인물의 행동 방식·태도·말투에서 성격을 생각해 본다.
- ④ 인물간의 대화, 인물과 관련된 일화, 인물의 외양 묘사, 인물의 이름 등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생각해 본다.
- ⑤ 성격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위에 제시한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어휘에서 대립되는 성격을 생각해 본다.
- ⑥ 배경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본다.

(2)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 찾는 방법

- ① 성격에 관한 요약·설명·논평·심리 분석과 갈등, 외양 묘사, 버릇·습성, 태도, 취미, 별명 등은 성격을 드러낸다.
- ② 보편성에서 벗어난 행동·말투·대화와 고백, 과거의 일화 등은 성격을 드러낸다.
- ③ 제시된 인물의 의지가 들어있는 행동은 성격을 드러낸다.
- ④ 동기가 부여된 행동은 성격을 드러낸다.
- ⑤ 자아 발견과 자아 각성은 성격을 드러낸다.
- ⑥ 제시된 인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성격을 드러낸다.

(3)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의 갈래 알아내는 방법

- ① 직접적 방법은 서술자가 대상 인물의 성격을 ‘누구는 어떠하다’라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② 간접적 방법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제시되지 않는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관촌수필, 이문구

시점

① 인물의 행적 부분 : 1인칭 관찰자 시점

② 인물평 부분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 산업화 과정에서 겪는 소외, 갈등, 농촌의 어려움 그리고 그 해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삶의 반성의 계기를 마련함.

짧은 줄거리 : 8편으로 된 연작 소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락서산(日落西山) : 나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할아버지와 옛날 어린 시절 고향 풍경을 향수조로 엮음. 2. 화무십일(花無十日) : 6·25전쟁을 통한 윤 영감 일가의 수난사, 비극적 관계를 회상. 3. 행운유수(行雲流水) : 성장기에 함께 했던 웅점이의 결혼 생활, 인생유전을 가슴 아프게 그림. 4. 녹수청산(綠水靑山) : 대복이와 그 가족에 얽힌 이웃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이 퇴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 5. 공산토월(空山吐月) : 왕조 체제의 억압적 구조 속에 신음하면서도 서로 돕던 백성의 전형을 석공(石工)을 통해 보여 줌. 6. 관산추정(關山獨丁) : 포근하던 한대(大川)가 도시에서 밀려들어온 소비 문화와 퇴폐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림. 7. 여요주서(與謠註序) : 아버지의 병구원을 위해 잡은 꿩 때문에 자연 보호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를 당함. 8. 월곡후야(月谷後夜) :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을 둘러싸고 동네 청년들이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다른 눈썹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중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잠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라구 웅점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통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면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돌면 요까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구뿐으로 일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재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재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였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재꼴이 남루한 낮선 사람은 모두 전재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재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재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임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재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알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점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다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숨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홀이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체꼴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후에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 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겟슈.”

옹점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옹점이는 서슴지 않고,

“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혹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앓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옹점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옹점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향품배** :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01 윗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 옹점이가 숨씨는 나무랄 데 없지만 통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야.
- ② 옹점이 자신 : 나보고 오지랖이 넓다고들 하는데, 나 없으면 동네 큰 잔치는 누가 준비하지?
- ③ 장돌뱅이 총각 : 옹점이가 가난하지만 앓으면 색시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 ④ 근동 사람 : 옹점이네 속사정을 잘 아는데, 옹점이가 사람만 놓고 보면 커다란 흠은 없지.

- ⑤ 절름발이 늙은이 : 관촌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웅점이는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성격이나 서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③의 내용은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편이 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변연하게 외면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어긋난다.

● **오답 배제기** ① ‘남다른 눈썹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등의 구절에서 드러난 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한다. ②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같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편이 싸워 주며, 부지런하러 들기로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라는 구절에 드러난 웅점이의 성격과 일치한다. ④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여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구절의 내용과 일치한다. 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견디겠슈.’라는 웅점이의 말과 일치한다.

✓ **해답** ③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화랑의 후에, 김동리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 일제 강점기 몰락한 양반 계층의 정신적 오만과 허위성 비판

짧은 줄거리 : 어느 해 가을 날, 나는 가문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조선의 심벌 황진사를 숙부의 소개로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문벌에 대해 화랑의 후예라며 허세나 부리고 남에게 빌붙어 신세를 지기까지 하며, 약장수의 패거리에 끼여 효험이 증명되지 않은 약 선전에 참가하다가 결국 경찰에 끌려가기까지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바닥이 얼어붙고 먼 산에 눈발이 치고 그 해는 이른 겨울부터 몹시 추웠다. 그동안 숙부님은 몇 번이나 집에 다녀가시고 관상소 출입도 더러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황 진사의 얼굴은 그 뒤로 비치 않았다. 다만, 삼촌을 통해 그의 시골이 충청도 어디란 것과 그의 문벌이 놀라운 양반이란 것과, 그의 조상에는 정승 판서 따위가 많이 났다는 것과, 그 자신도 현재 진사 구실을 한다는 것과, 그의 머릿속은 자기 가벌에 대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이었다. (중략)

나는 곧 그를 나의 방에 안내한 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즉,

“거야 친구 집에서 지냈지요 뭐, 호호…….”

하며 재미난 듯이 웃었다.

“아 참, 완장 선생은 여태 안 왔시우?” / “수차 다녀가셨지요.”

“아, 그렇 거루 난 여태 한 번두 못 뵈었으니 이거 죄송해서, 흐흐…….”

그는 숯불을 안고 앉아 또 히히거리고 웃었다.

흰떡을 사다 숯불에 구워서 그에게 대접을 하고 나는 아까 하다 둔 일을 마저 해
치울 양으로 잠깐 책상에 앉아 있으려니까, 그는 언 것과 구운 것을 가리지 않고 한
참 부지런히 집어 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뽑아서,

“관관재구(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洲)로다. 요조숙녀(窈窕淑女)는 군자호구
(君子好逑)로다.”

하고 대문을 외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체하고 있으니까,

“아,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단 말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 공자님께서 시전에 음군을 두셨거든!”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결눈질로 흘겨보며 마구 기염을
뽑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모른 체하고 있으니까 그는 화로 곁에서 일어서더니, 두루마기 자락
을 뒤로 젖히고 저고리 셔를 위로 쳐들고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는 시늉을 하였다.
나는 속으로, 옷의 이를 잡아 내어 숯불에 넣으려는 겐가 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한번
나 있는 쪽을 흘겨보고 나서 배에 두르고 있던 때묻은 전대 하나를 꺼내었다. 전대
속에서는 네 귀가 다 이지러지고 종이 빛까지 우중충하게 묵은 모필 사책 한 권과,
백지로 싸서 노끈으로 찡챙 감아 맨 솔잎 한줌과 휴지 조각 몇 장이 나왔다.

“거 무슨 책이유?”

내가 이렇게 물은즉,

“아, 주역책이지 그랴.”

하고 된소리를 질렀다. 과연 그 이지러진 네 귀마다 넓적넓적한 껍가 그려져 있
는 것으로 보아 주역책임에 틀림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주역책은 왜 하필 전
대에 넣어서 두르고 다니느냐고 물은즉,

“아, 공자님께서도 역은 삼천독을 하셨다는데 그랴.”

하고, 된소리를 질러 놓고 나서, 다시 조용히 음성을 낮추어,

“아, 여북해 지략의 조종이요 조화의 근본 아니오.”

하였다.

—김동리, 화랑의 후예

02 '황 진사'와 <보기>의 '초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초시는 돈의 필요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끼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 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갇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뿜 지른다. 돌아다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곷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 “예순이 널 모레…… 켜—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만 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써야 문화 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이태준, 복덕방

- ① 황 진사 : 너나 나나 살 만큼 살았는데, 너무 돈 돈 하지 말라구. 사람이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 ② 초시 : 날씨는 춥지 담배는 피워야지.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 다들 제 코가 석 잔데. 더 늙기 전에 담뱃값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어?
- ③ 황 진사 : 초시면 초시답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몸을 함부로 내두르면 어찌나? 유유자적 복덕방에서 장기나 두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자님 말씀이라도 들려주면 좀 좋아?
- ④ 초시 : 문화 주택이 준비한 시대에 공맹을 읊은들 뭣 하나? 난 차라리 금광이나 찾아다니며 기회를 엿볼 걸세.
- ⑤ 황 진사 : 육효가 잘만 뽑히면야 나도 족보를 팔아서라도 뭔가를 해 볼 걸세. 지략과 조화는 다 때가 있는 법이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두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황 진사는 삼촌을 뵈야한다는 핑계로 자주 삼촌댁으로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면서도 양반 행세를 하는 액션을 보이고 있다. 즉 속 빈 강정과 같이 겉으로만 체면을 유지하려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족보를 팔아 체면을 손상시키는 뭔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체면을 중시하는 황 진사의 성격에 어울리는 대화이다. ②, ④ <보기>의 초시는 황 진사와는 달리 돈을 중시하는 액션을 보이고 있어 성격에 어울리는 대화이다.

✓ **매 답**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兵火)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 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 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는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갔다.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 주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씨가 거기 있었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 (중략)

이튿날 최씨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개령동을 찾아가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님의 유골을 거두어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하인들도 돌아왔다. 이생은 이후로 인간사를 싫어하여 친척이나 귀한 손님의 길 흉사에도 가지 않고 늘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몇 해가 훌쩍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이르기를, “세 번씩이나 가약(佳約)을 맺었으나, 세상일이 서로 어긋나기만 합니다. 아직 실컷 즐기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문득 닥쳐왔군요.”

하고는 오열하였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최씨가 말했다.

“저승길 가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天帝)께서는 첩과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죄도 없었기에, 저를 잠시 머물게 하여 낭군과 근심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승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어 하녀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도적떼 밀려와서 온 세상이 싸움터인데,
구슬 꽃 흩어지고 원앙도 짝 잃었네.
여기저기 널린 유해(遺骸)는 묻어 주는 이 없고,
얼룩진 유혼(遺魂)은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
고당루(高唐樓)에 한번 내려온 무산(巫山) 선녀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참담하도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이생규장전, 김시습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짧은 줄거리 : 어느 봄날, 이생은 우연히 귀족집 담장 안을 엿보다가 문득 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내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당시 귀족 집안의 엄격한 도덕과 규율로써는 이러한 야합이 허용될 수 없었다. 이 일은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그를 먼 곳으로 쫓아버렸고, 아가씨는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처녀의 부모는 중매인을 이씨네 집에 세 번이나 보내어 그들의 인연을 맺어 주었다. 그 후 나라 안에 흉년이 침범해 와서 두 집안 가족들은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이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아가씨는 끝내 정조를 지키어 적도의 손에 죽었다. 이생이 피난에서 돌아오니 빈집만이 남아 있었다. 조금 후에 그 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미 죽은 환신(幻身)인 줄 알면서도 반가이 맞아 주었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도적에게 죽은 두 집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잘 장사지내 주었다. 그 후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이 환신임을 말하고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생도 몇 달 후에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두 세계가 아득히 멀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

한 마디 부를 때마다 삼킨 눈물이 흘러내려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생도 참담한 심정을 견잡지 못하면서 말했다.

“차라리 부인과 함께 저승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남아 목숨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골이 들판에 널려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고 매장하였겠소? 고인(古人)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禮)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를 부인이 다 한 것은 천성이 순수하고 효성스러우며 인정이 독실하고 도탑기 때문이니 감격함을 그칠 수 없었으며, 나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좀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에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최씨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첩은 이미 귀신의 명부(名簿)에 실려 있으니 오래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군이 인간 세상에 연연하면 명부(冥府)의 법에 위배되어 죄가 저만 아니라 낭군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첩의 유골이 모처(某處)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푸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이나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최씨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도 최씨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서너 달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 절의(節義)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03 윗글의 주인공 ‘이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 ②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했다.
- ③ 최씨와 해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 ④ 한시를 짓고 즐길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
- ⑤ 벼슬도 구하지 않고, 세상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라는 구절로 보아 이생은 소극적이며 소시민적인 성격을 지녔다. 따라서 ①은 부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로부터, ③은 ‘최씨가 이생보다 빨리 죽었다는 내용에서 알아 낼 수 있다. ④는 ‘최씨와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구절로부터, ⑤는 ‘벼슬을 구하지 않고’라는 구절과 ‘인간사를 싫어하여’라는 구절로부터 알아 낼 수 있는 내용이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서는 새벽에 일어나 감자밭에 나가 벌레를 잡고 뽕나무 묘목(苗木)밭을 한 번 돌아보고는 서울 갈 때 입었던 누런 양복을 입고 읍내로 들어갔다.

먼저 보통학교 교장에게로 가서 제 손으로 만든 빗자루 다섯 개를 쓰라고 주고, 모를 다 냈으니 비료를 사야겠다고 이십 오 원을 취해 가지고는 뽕나무 묘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면사무소로 들어갔다.

“리상 잘 왔소. 한턱 내야지, 오늘은 ‘리상’의 점심을 얻어 먹어야겠군…….”

세금 못 낸 사람을 잘 치기로 유명한 뚱뚱한 서기가 길서가 들어서자마자 말을 했다.

“한턱은 점심 때 내기루 하구, 묘목은 언제 가져갑니까? 펍 자랐는데, 이번에는 돈을 좀 실하게 받아야겠는데요.”

“한턱만 내면야 잘 팔아 주지……. 내게만 곱게 보이란 말이야. 값을 정해서 갖다 맡기면 그만이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감히 해 내나…….”

면서기는 농담 비슷하게 웃었으나 허리를 구부리고 복종하는 농부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할 자신이 있다는 듯한 호걸 웃음을 웃었다.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을 뽑는 때두 면장을 시켜서 잘 말하도록 할 테니 그저 한턱만 내요.”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술 한 병이면 녹초가 될 걸……. 그러면서도 얼마나 먹는 듯이…… 하하하…….”

길서는 진정으로 한 톱 내고 싶기도 했다. 묘목만 잘 팔아 주면 예산 이외의 돈이 수십 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때 뚱뚱한 몸에 맵시 없는 의복을 입은 면장이 들어와서 길서 앞에 섰다. 길서는 인사를 하고 서울 갔던 이야기를 보고했다.

보고를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한 뒤는 곧장,

“그런데 이번 호세는 자네 동네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해야겠네……. 보통학교를 육 학급으로 증축해야겠으니까…….”

하고 길지도 않은 수염을 쓸며 호세 이야기를 했다.

“거야 제가 압니까?”

“아니야, 자네 동네서야 자네만 승낙하면 되는 게니까. 그렇다구 자네에게 해로운 것은 없을 게고…….” / “글쎄요.”

길서는 면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미 없는 말을 해서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자기도 끼니 때를 굶고 지나는 동네 소작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지 일본은 둘째로 하고라도 묘목도 못 팔아먹을 것이며 그런 말이 보통학교 교장 귀에 들어가면 돈도 빌어다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묘목 심었던 밭에 조를 심게 되고, 면사무소 사무원과 학교 선생들에게 팔던 감자와 파도 썩어버리게 된다.

삼백 평밖에 안 되는 논에 비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미곡 품평회(米穀品評會)에 출품도 못해 볼 것이며, 그러면 상금을 못 탈 뿐 아니라 벼가 겨우 넉 섬밖에 소출 못 날 것이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과 꼭 같이 일년 양식도 부족할 것이 아닌가.

“자네 동네 사람들은 암전하게 근심 없이 사는 모양이던데…….”

면장이 다시 말을 꺼낼 때 길서는 곧 대답했다.

“그러문요, 근심이 조금도 없다고야 할 수 없지마는 무던한 편은 됩니다.”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얼굴의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강충이(벼 줄기를 깎아 먹어 벼를 마르게 하는 벌레)가 먹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찧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 보다는 더 잘 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이(蝨)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가 못 살게 하는 것이 가슴 원통했으나 여름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小作料)를 조금 감해 달래 보자고 했다.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 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 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쟁의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히어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마음을 먹고 폐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 보았으나 물론 들어 주질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를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년부터는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이,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논 앞에 서서 ㉠ 모범경작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벼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 길만치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 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은 척 들어 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이 있어 비료만 많이 하면 이삼곱을 내겠다. 그까짓거…….”

기억이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값도 모르는 뽕나무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십삼 등 하던 호세가 십일 등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것보다도 십 등이던 길서네만은 그대로 십등에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길서네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흥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기막힌 일이었다.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모범 경작생, 박영준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개인적 이익 때문에 일제의 수탈 정책에 이용당하는 한 젊은이의 태도 비판

짧은 줄거리 : 농촌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며 성두네 논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모내기에 바쁘다. 의숙을 사랑하는 길서는 농사 강습회 요원으로 서울을 다녀온다. 길서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호세를 올리자는 친일 관료를 도와준다. 병충해로 농사가 엉망이 되자 수심에 가득 찬 농민들은 길서에게 세금을 좀 깎아 달라는 건의를 지주와 친일 관료들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길서는 아무 말이 없다. 길서의 본색을 알게 된 농민들은 길서의 논에 일제가 박은 '모범 경작생'이란 팻말을 찢개고 길서는 성두에게 쫓겨 도망친다.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흥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 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보다.’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 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다.

길서는 일본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 길서’라고 쓴 말패는 간 곳도 없고, ‘모범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에는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읍내 서재당 집엘 가서 저녁 때가 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의기 양양해 온 길서의 마음은 쪼박쪼박 깨어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 보지 못하던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슬했을 무렵 의숙이를 찾아 갔건만 그를 본 의숙이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했다.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리었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성두가 충혈된 얼굴로 아랫문으로 뛰어 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0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묘사를 위주로 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심리까지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특정한 인물의 편에 서서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사건에 끼어 들어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⑤ 긴 호흡의 문장을 구사하여 인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02 다음 중, 밑줄 그은 부분에 드러난 서술자의 의도가 ①과 같은 것은?

- ① 질그릇이 땅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마당엔 아무도 없다. 부엌에 쥐가 들었나? 샷문을 열어 보려니까,
“아 아아 아이 아아 아아-----.”
하는 소리가 뒤란 곁으로 들려 온다. 샷문을 열려던 박씨는 뒷문을 밀었다.

장독대 밑 비스듬한 켄 아래 아다다가 입을 헤 벌리고 납작하니 옆더져 두 다리만을 힘없이 버지력거리고 있다. 그리고, 머리 편으로 한 발쭈 나가 선 깨어진 동이 조각이 질서 없이 너저분하게 된장 속에 묻혀 있다.

—백치 아다다, 계용묵

- ② “이년아, 죽었던 말이야, 왜 말이 없어?” /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매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 문득 김 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운수 좋은 날, 현진건

- ③ 허 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엷독배기 상판을 쳐들고 대어 설 숯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일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죽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 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죽집 문을 들어서 술 좌석에서 짜장 동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빨근 화가 나 버렸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와 한몫 보자는 셈이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 ④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옥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으레 동옥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 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옥의 오뇌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옥과 동옥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비 오는 날, 손창섭

- ⑤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 사흘이 지났다. / 밤중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 그리고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 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사의 손에도 십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실려 갔다. —감자, 김동인

03 '길서'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길서는 면장으로부터 호세 인상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
- ㄴ. 길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주에게 도지를 감해 달라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한다.
- ㄷ. 길서는 일본 시찰단으로 뽑히어 떠나간다.
- ㄹ. 일본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길서는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이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 ㅁ. 의숙이를 찾아 갔던 길서는 성두가 뛰어 들자 들고 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친다.

- ① ㄱ, ㄴ을 통해 이기적인 길서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② ㄱ, ㄷ에서 면장의 제안을 길서가 수락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ㄱ, ㄴ, ㄷ을 통해 길서가 권력에 아부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
- ④ ㄹ에서 마을 사람들의 길서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ㅁ, ㄷ을 통해 길서가 지난날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04 〈보기〉의 시에 형상화된 ‘섬진강’이 ‘길서’에게 충고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섬진강 1

—김용택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뻗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늪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꼬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① 이보게, 삶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 ② 어허, 나 하나 잘 살자고 남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네.
- ③ 이 사람아, 무슨 일이든지 결단을 빨리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 ④ 아이 참, 무슨 행동을 느긋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는 것이야.
- ⑤ 이것 좀 봐, 내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줄 줄 알아야지.



[유형모의 01-1]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1 ②

● 문항 분석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그들은~부럽게 내려다보았다.' 등의 구절에서 보듯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심리까지 제시할 수 있으므로 ②가 알맞다.

● 오답 비루기 ①은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족같이 민승민 승해졌다.' 등등의 구절에서 보듯 주관적 묘사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보다는 사건 전개를 주로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하다. ③은 서술자의 태도가 길서에 대하여서도 객관적이어서 부적합하며 ④는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여기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없다. ⑤는 비교적 짧은 문장과 보통 길이의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부적합하다.

02 ⑤

● 문항 분석 소설의 표현 의도와 기법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 드러난 서술자의 의도는 '일제로부터는 모범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단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가 ㉡에서 보듯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반어적(反語的)이라 할 수 있다. ㉢에 제시된 복녀의 원 뜻은 '복 많은 여자'나 작품내에서는 매우 복이 없는 인물로 되어 있으므로 반어적 명명법(命名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에 제시된 아다다는 의성어를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 참지는 의미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므로 지문에 제시된 그의 순박하고 따뜻한 사랑이란 내용에 잘 들어맞는 이름이다. ㉢ 생원이란 나이 많은 선비나 점잖은 사람의 뜻이므로 젊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데 걸맞은 이름이다. ㉣ 원구는 특별한 의미 없이 지어 붙인 보통사람의 이름이고 지문의 내용도 그에 알맞다.

03 ⑤

● 문항 분석 인물의 행동에 드러난 성격이나 심리,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길서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거나 뒷문으로 도망친다는 행위에서 지난날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

● 오답 비루기 ① 길서는 부당한 호세 인상에 반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지주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는 도지 감세 부탁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이기적임을 알 수 있다. ② ㄱ, ㄴ과 본문의 '일본으로 보내는 사람을 뽑는 때 두 면장을 시켜서 잘 말하도록 할 테니 그저 한턱만 내요.'라는 제안으로 볼 때 면장의 제안을 길수가 수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힘센 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④ 길서와 관련된 사물을 파괴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길서에 대해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②

● 문항 분석 새로운 자료의 태도를 알아내어 제시된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를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의 시에서 섬진강은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주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타적인 사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길서는 어려운 형편의 마을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호세를 올리게 하여 더 어렵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자기만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기적 행동을 나무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모두 길서의 액션과 관련된 이기적 성격과 무관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傳説)이 어떻게 됐냐 할 꺼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 첨지네 집터자리라 그래. 장재 첨지네 집터자리네, ㉠ 거계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 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깽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계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설람,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주구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꺼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랑에다가 쇠똥을 옹단 말야.

그대루 그 중은 조금두 낫색두 변하지 않구서, 거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 그 쇠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루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재 첨지의 며느리가 인제 쌀을 씻구 있다가, 그 광경을 보구서, 그 중 보구서는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구.”

그러면서 ㉦쌀, 씻든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퍼섬낭, 그 바랑에다 여췄단 말야.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인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루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구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구.”

그랬단 말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루 들어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구, 또 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 토마리를 꿰어서 이구 나오다가,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가지구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달음박질루 가는데, 어린애를 업구 명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용소와 머느리바위,
작자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인간의 탐욕과 경솔한 행동에 대한
경계

짧은 줄거리 : 용소라는 곳에 인색한 장자
참지가 살았다. 어느 날 불타산의 도승
이 시주를 하라고 하자 그는 쌀 대신
쇠뿔을 바람에 넣어 주었다. 이를 본 머
느리가 대신 사과하며 쌀을 시주하자
도승은 재앙이 내릴 것이니 불타산으로
파신하라고 일러준다. 아이를 업고 명
주 도투마리를 이고 개와 함께 산을 오
르던 뇌성벽력이 치자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다. 그 순간
머느리는 화성이 되었고 장자 참지의
집터는 깊은 연못이 되었다.

주 도투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 가지구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 때까
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가분자기* 흐리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니 말야. 근데 그 중
이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나면,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는 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가분자기 뇌성벽력을 하면서 그 벼
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봤단 말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개두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두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석하니 거기 사람들은 이것이 머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 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
이 아직도 있단 말야. 한데 그때 그 이 벼락을 치면서 ㉢장재 참지네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 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야. 한데
그 소가 어느 만침 넓으나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담두 더 넓은데, 이거 고만
두 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
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지반이 울린단 말야. 이리 이리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구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에 그 평야
에, 눈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구서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두 느는
뱀이 없구, 아무리 가물어두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볼라
구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는 재니까 명지실 몇을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몰
른다는, 그만침 깊은 소가 됐단 말야.

* 우정 : 일부러

* 가분자기 : 갑자기

01 ㉠~㉤ 중, 서술의 양상이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02 윗글의 ‘장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① 배 주고 뱃속 빌어먹겠다.

② 거지끼리 동냥 바가지 깬다.

③ 앞은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④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

⑤ 포수 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유형모의 01-2]

01 ④ 02 ③ 03 ② 04 ⑤

01 ④

● 문항 분석 사건 전개와 무관한 서술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더미에서 쇠통을 퍼가주구서는'라는 구절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영감이 성이 나서 그걸(부삽)루 두엄더미에서 쇠통을 퍼가주구서는'라는 구절이고 그 나머지 구절은 청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③, ⑤ 모두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구절이다.

02 ③

● 문항 분석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땡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가 가라구."라는 구절에 장자의 인색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으며 ③도 지독하게 인색하다는 의미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당당한 자기 권리나 이익은 행사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는 적은 이익이나 차지하게 됨을 이르는 말. 뱃속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보통 먹지 않음. ② 서로 도와 주고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해친다는 말. ④ 가난하고 미천하던 옛날을 생각지 않고 잘난 체하는 것을 비꼬는 말. ⑤ 큰 세력 믿고 주저없이 날뛰는 말.

03 ②

● 문항 분석 소설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구절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② ㉠에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며 불타산을 향해 가는 것은 절대적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머느리의 인자한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③ 세속적 욕망을 못 버린 머느리에 대한 하늘의 징계를 의미한다. ④ 장자에 대한 하늘의 징계를 의미한다. ⑤ 못의 깊이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다.

04 ⑤

● 문항 분석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두 절대루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구절은 시간을 역행한 내용이므로 뒷글의 구성은 입체적 구성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우정, 가분자기 등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향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② 사건 전개와 무관한 '어떻게 됐냐 할 꺼 같으면' 등등의 군소리를 많이 쓰고 있어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③ 실제로 말하는 대로 채록된 글이다. ④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구 말았다는 게야.' 등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